

정책연구보고 P122 | 2009. 12.

농촌학교의 활성화 실태와 시사점

최 경 환 연구 위원
마 상 진 부 연구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최 경 환 연 구 위 원 연구 총괄, 제1장, 제3장 집필
마 상 진 부 연 구 위 원 제2장, 제4장, 제5장 집필

머 리 말

그동안 학생이 적어 통폐합된 농촌학교가 2,500여 개교에 달한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농촌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이촌향도하였으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부터는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농촌인구 감소 - 학생 수 감소 -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한다는 정책기조 또한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학생 수가 늘어나는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 그 시작은 1990년대 학교통폐합에 반대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두 학교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학교 교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교육계 내부의 각성과 지역사회의 관심, 그리고 관련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최근 매스컴이나 교육계 등에서 활성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그 과정과 실태 및 당면과제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농촌학교와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농촌학교 소규모화의 원인을 농촌의 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가 하면, 반대로 농촌사회의 과소화 내지 붕괴의 원인을 농촌학교 교육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사례 학교들을 보면 이러한 단선적인 관계로만 파악해서는 해결책이 없으며, 농촌학교와 농촌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농촌학교 교육도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지역사회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무작정 도시의 큰 학교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들이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으며, 모두가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농촌학교와 농촌사회가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초가 되어 앞으로 농촌사회와 농촌학교가 더불어 사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실천가 등 여러분의 협력으로 수행되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에 흔쾌히 응해 주신 교장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 학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농촌교육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농촌학교 교육의 현황, 농촌학교 관련 정책 등과 관련한 문헌들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활성화된 농촌학교에 대한 사례 조사와 농촌학교 일반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농촌학교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의 연계 강화, 즉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학교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 농촌학교 활성화 과제는 크게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①농촌학교와 농촌 지역의 농업관련 기관 간의 연계 강화, ②농업·농촌 관련 장학재단 활용, ③농촌학교의 도시민 홍보 지원, ④도시민의 농촌학교에 대한 수요의 체계적 파악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농촌학교 주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①농촌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확대, ②농촌학교의 (예비/현직) 교사에 대한 전문성 향상, ③농촌학교 근무 교사의 특별채용, ④교사와 학부모 공동 연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①농촌학교의 ‘지역배우기/ 지역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②농촌학교의 산촌유학 프로그램 지원, ③지역별 농촌학교 간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④마을 공부방 설치 운영 활성화, ⑤농촌학교 학부모 단체의 학교 참여 활동 지원, ⑥‘(가칭) 농산어촌 삶의 질 모델학교’ 시범사업 실시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How to Revitalize Rural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revitalize rural schools and develop measures for promoting rural school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rural schools, reviewed government policies, conducted a case study of five successfully revitalized rural schools, surveyed eighty five rural schools, and interviewed related experts.

The case study and survey indicate that revitalization of rural schools depends on principal's leadership, teacher's passion and expertise, community participation in schools, and community-based school programs.

Based on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survey and expert interview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measures to facilitate rural schools:

- Build up the foundation of school-community linkage by ① having rural schools connect with rural and agricultural public organizations and financial aid institutions, ② supporting rural school promotion to city people, and ③ assessing city people's demand for rural schools;

- Strengthen major rural school participants' competency by ① designating more rural schools as autonomous schools; ② enhancing the expertise of pre-service and in-service teachers through education; ③ specially recruiting teachers; and ④ facilitating parents-teacher joint education programs;

- Support school-community linkage programs by ① facilitating rural schools' community learning and exchange programs, ② expanding city students' short or long-term studying at rural public schools, ③ activating the education network among rural schools, ④ setting up community study centers for rural students, ⑤ promoting parents' school participation programs, and ⑥ launching the 'quality-of-life model school' project.

Researchers: Kyeong-Hwan Choi and Sang-Jin Ma

Research period: 2009. 9. - 2009. 12.

E-mail address: kyeong@krei.re.kr msj@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4. 용어 정의	6

제2장 농촌학교 현황과 문제점

1. 기본 현황	7
2. 교육 환경	9
3. 교육 성과	13

제3장 농촌학교 관련 정책

1. 과거 농촌학교 관련 정책	15
2. 최근 농촌학교 관련 정책	18
3. 시사점	25

제4장 농촌 학교 활성화 실태조사

1. 사례 조사	27
2. 설문 조사	37
3. 종합: 농촌학교의 활성화 요인	45

제5장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학교 역할 강화 방안

1. 기본 방향	49
----------------	----

2. 추진 과제	51
부록 1: 농촌학교 우수사례 리스트	61
부록 2: 설문 조사	67
참고 문헌	85

표·그림 차례

제1장

표 1 - 1. 사례조사 대상학교와 조사시기	4
--------------------------------	---

제2장

표 2 - 1. 2000년 이후 지역별 학교 수 변화	8
표 2 - 2. 2000년 이후 지역별 학생 수 변화	9
표 2 - 3. 지역별 주요 학교 규모 지표	10
표 2 - 4. 농촌학교 교사의 현재 학교 근무 이유	10
표 2 - 5. 농촌학교 교사의 장기근무 의사 및 타 지역 거주 비율(%)	11
표 2 - 6. 농촌과 도시의 사교육 여건 비교	12
표 2 - 7. 지역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 및 비율	13
표 2 - 8. 농촌 주민들의 주요 이촌 이유(%)	14

제3장

표 3 - 1. ‘농어촌발전대책’의 교육여건 개선 대책과 추진실태	16
표 3 - 2.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교육부문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17
표 3 - 3.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교육부문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24

제4장

표 4 - 1. 통계 분석에 사용된 변인 정의	39
표 4 - 2. 농촌학교 학생 수 변화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42

x

표 4 - 3. 농촌학교의 학생 수 변화 관련 변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44
--	----

제5장

그림 5-1.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학교 역할 강화 방안	51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경제가 발전하면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인구의 도시 이동은 농촌 교육 문제의 근원이 되었고, 이후 ‘농촌인구 감소 → 학생 수 감소 → 학교 통·폐합 → 교육의 질 저하 →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농촌학교 교육문제의 해결은 농촌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선행 조사·연구에서 농촌 청장년층 이촌의 주된 이유가 자녀교육에 있으며, 도시지역 청장년이 귀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역시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교육 문제를 보는 관점도 학계 및 연구자 간에 다양하다.
 - 한편에서는 농촌 학생의 학력 및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일정 수준으로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가면서 농촌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학생의 학력 신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 정부는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지역적으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그동안 농촌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촌교육 문제는 중요한 현안이 되었으며, 그때마다 다양한 농촌교육 발전방안이 수립·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가 소규모화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최근 일부 지역에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활력을 되찾는 농촌학교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지역사회운동 차원에서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 중심으로 추진되던 것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태와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으며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농촌교육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 제2장에서는 농촌학교의 기본 현황과 교육환경과 성과 측면에서 농촌학교가 직면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 제3장에서는 해방 이후 추진된 과거 농촌학교 정책, M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농촌학교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제4장에서는 활성화된 농촌학교에 대한 사례 조사, 그리고 농촌학교에 활성화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농촌학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구명하였다.
- 제5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수행한 농촌학교 활성화 사례 조사와 설문 조사 그리고 전문가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의 연계 강화, 즉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학교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3.1. 문헌 연구

- 농촌학교 현황과 문제점, 농촌학교 관련 정책, 농촌학교 활성화 요인 분석 등을 위해 관련 문헌, 국내외 선행 연구와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3.2. 사례 조사

- 농촌학교의 활성화 요인 도출을 위하여 학교 현장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언론(신문, TV)보도, 관련 선행연구,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정책에서 성공 사례로 언급된 농촌학교 중¹ 5개 학교를 선정 후,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면담일자를 정한 후 연구진이 방문하여 학교장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는 2009년 10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되었고, 주요 조사 내용은 학교 및 지역사회 기본 현황, 교육 프로그램 특징, 학교 활성화의 요인과 주요 성과, 농업·농촌 정책에 바라는 점 등이었다.

표 1-1. 사례조사 대상학교와 조사시기

사례 학교	조사시기
조현초등학교	2009년 10월 29일
이성초등학교	2009년 12월 10일
거산초등학교	2009년 12월 10일
면온초등학교	2009년 12월 16일
남한산초등학교	2009년 12월 17일

3.3. 전문가 면담

- 농촌학교 활성화의 요인 그리고 농촌학교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농촌학교와 관련한 전문기관(충남교육연구소, 전북청소년 교육문화원, 공주대학교 부설 한국농산어촌교육발전센터)을 선정하여 관련자들의 농촌학교 활성화와 관련한 전문적 견해를 조사하였다.
- 충남교육연구소(<http://www.chungnamedu.or.kr/>)²에서는 부소장, 사무국장을

¹ 부록 1에 연구자가 정리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² 충남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남교육연구소는 충남 지역 교수, 교사 등 교육자들과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주민 200여 명이 주체가 되어 ‘교육 및 교육주체 정체성 재정립, 연구실천 역량 조직, 지역단위 연구실천 센터 기능, 교육운동 연대 강화’ 라는 취지로 2000년 9월 설립된 민간 교육 연구실천 단체(2002년 충남교육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농촌교육연구, ② 교사 연수, ③

면담하였고(2009년 9월 22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http://blue21.or.kr/>)³에서는 조직국장⁴을 면담하였으며(2009년 9월 23일), 한국농산어촌교육발전센터(KoREC)⁵에서는 소장을 면담하였다(2009년 11월 5일).

3.4. 설문조사

- 농촌학교에 일반화 가능한 활성화의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해 농촌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교육부에서 작성한 2006년 학교일람표⁶를 토대로 농촌학교 23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교 중 1/2은 각종 정책사업에 선정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학교를, 1/2은 무작위 표집하였다.
- 조사도구: 질문지가 사용되었으며, 학교 기본현황, 학교 활동현황, 지역사회 특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2 참조>.

농촌학생 및 주민교육 지원, ④ 농촌지역 교육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다.

³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년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에서 출발하여 2005년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창립(전북교육청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는 ① 교육 소외 계층 교육 지원 활동(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농촌교육 살리기 및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 및 지원 활동), ② 교육 전문성 향상 위한 연수 및 프로그램 활성화, ③ 교육 연대 사업의 안정적 추진(전북교육네트워크 구성 노력, 전북교육시민회의 활동 전망 마련, 전북교육 행정에 대한 감시 및 대안 제시 활동 전개, 지역교육살리기 운동 지원) 등이 있다.

⁴ 전북농촌교육연구회 사무국장 겸임

⁵ 공주대학교(충남 공주시) 내 소재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농산어촌 학교와 관련한 각종 사업(우수고교 육성, 전원학교, 연중돌봄학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주대학교(교육학과)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⁶ 2007년부터 전국단위 학교일람표가 작성되고 있지 않다.

- 조사방법 및 기간: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조사 협조 공문과 질문지를 우편을 통해 발송한 후, 학교에서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였다. 총 230부 중 8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37.0%였다.

4. 용어 정의

- 농촌학교: 이 연구에서 농촌학교란 행정구역상 읍부나 면부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의미한다. 농촌학교에는 행정구역상 읍면에 위치한 초·중·고·대학교가 모두 포함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촌의 문화 중심지로서 의미가 깊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의 밀접성 측면에서 관련성이 높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따라서 읍부나 면부에 위치한 중학교, 고등학교와 행정구역상 동부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는 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 농촌학교 활성화 사례: 농촌학교 문제는 농촌 주민의 이농을 촉진시키고,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학교의 활성화 사례를 대다수 농촌학교가 학생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력적인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근 도시 지역의 학생을 유입시킴으로써 학생 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농촌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해당 지역 주민이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지역으로 도시민 이주를 촉진시키는 농촌학교를 의미한다.

제2 장

농촌학교 현황과 문제점

- 이 장에서는 농촌학교의 기본 현황과 교육환경 및 교육성과 측면에서 농촌학교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1. 기본 현황

- 2000년 이후 전체 학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도 농촌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 초기만 해도 농촌학교는 전체 학교 수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지만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2008년에는 44.8%로 줄어들었다<표 2-1>.
 - 농촌학교 수는 2000년 2,691개에서 2008년에 82개가 줄어 2,609개였다. 반면 도시 학교 수는 동일기간 24.4%나 증가하였다.
 - 농촌에서도 동일 기간 읍지역의 학교 수는 오히려 15.2%나 늘어났지만, 면지역,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 수는 감소가 컸다.
 - 본교 기준으로 전국 읍(212개) 소재 평균 초등학교 수는 2.9교, 면소재 평균 초등학교 수는 1.34교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⁷. 전국 1,205개 면 가운데, 21개 면은 초등학교가 없으며, 그중 14개 면은 분교도 없었다.⁸

표 2-1. 2000년 이후 지역별 학교 수 변화

단위: 교, %

지역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학교 수 변화 ^a
도시지역	2,576	2,722	2,883	3,083	3,204	24.4
농촌지역	2,691	2,662	2,658	2,650	2,609	-3.0
읍지역	539	593	620	617	621	15.2
면지역	1,676	1,706	1,672	1,642	1,605	-4.2
도서벽지	476	363	366	391	383	-19.5
전체	5,267	5,384	5,541	5,733	5,813	10.4

a: $\frac{2008\text{년 통계치} - 2000\text{년 통계치}}{2000\text{년 통계치}} \times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0~2008. 교육통계연보.

- 2002년 이후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농촌학교 학생 수의 감소가 도시 학교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2008년 현재 전체 학생 중 농촌 학생은 16.6%를 차지하고 있다<표 2-2>.
 - 농촌학교 학생 수는 2000년 70만 6,705명에서 2008년 60만 9,385명으로 13.8%가 감소한 반면, 도시 학생 수는 동일 기간 7.6%가 감소했다.
 - 동일 기간 도시 학생 수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읍지역 학생은 오히려 늘어나(+3.1%), 다른 농촌 지역(면지역, 도시지역)의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추세와 대조적이었다.

7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방안 추진”(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8.26.)

8 초등학교 없는 면(강기갑 의원실 보도자료. 2009. 3. 26)

표 2-2. 2000년 이후 지역별 학생 수 변화

단위: 교, %

지역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학생 수 변화 ^a
도시지역	3,313,286	3,423,750	3,416,989	3,278,159	3,062,822	-7.6
농촌지역	706,705	714,616	699,206	646,884	609,385	-13.8
읍지역	319,742	361,577	372,773	345,369	329,647	3.1
면지역	325,482	301,893	276,302	252,696	230,100	-29.3
도서벽지	61,481	51,146	50,131	48,819	49,638	-19.3
전체	4,019,991	4,138,366	4,116,195	3,925,043	3,672,207	-8.7

a: $\frac{2008\text{년 통계치} - 2000\text{년 통계치}}{2000\text{년 통계치}} \times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0~2008. 교육통계연보.

2. 교육 환경

- 농촌학교가 도시학교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은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도시보다 적어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지만, 정도가 과하여 과소학급(10명 이하 학급), 나아가 복식학급(복수학년이 한학급 구성)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표 2-3>.
 -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30명이 넘는 도시학교에 비해 농촌학교는 20명 이하이다. 다만 읍지역은 도시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
 - 하지만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면지역은 전체 학교의 36.8%, 도서벽지는 56.7%였다. 이에 따라 면지역은 과소학급이 전체 학급의 42.7%, 도서지역는 75.9%를 차지하였다.
 - 소규모학교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하여 2010년 농촌학교(초·중·고)의 43%, 2015년에는 50%, 2020년에는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⁹

표 2-3. 지역별 주요 학교 규모 지표

단위: 명, 교, 개, %

지역구분		학급당 학생 수	소규모 학교 ^a	과소 학급 수 ^b	복식 학급 수
도시	대도시	31.1	59 (3.7)	17 (1.1)	17
	중소도시	34.4	145 (9.0)	50 (3.2)	52
농촌	읍	29.3	89 (14.3)	115 (17.9)	132
	면	18.1	590 (36.8)	743 (42.7)	569
	도서벽지	14.6	217 (56.7)	523 (75.9)	866
전체		30.2	1100 (18.9)	1,448 (23.3)	1,636

a: 분교 413개(도시 12개, 농촌지역 401개)는 포함되지 않았음.

b: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급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통계연보.

- 소규모학교에서의 과소학급, 복식학급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곤란하게 한다. 무엇보다 학급편제, 교직원 인사·배치, 업무분장 등 학교경영상 애로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농촌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만든다<표 2-4>.
- 한만길 등(2008)의 농촌학교 교사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일부는 자신이 원해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농촌학교 교사는 행정상의 배치(신규 배치나 순환근무)에 의해(65.4%),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승진상의 가산점때문에 농촌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표 2-4. 농촌학교 교사의 현재 학교 근무 이유

단위: %

지역구분	신규배치에 의한 배치	순환근무제에 의한 배치	승진 가산점	본인이 원해서 (생활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기타
읍	32.8	24.5	11.2	20.7	10.8
면	37.6	18.9	12.0	18.2	13.4
도서벽지	26.2	7.7	56.9	4.6	4.6
전체	34.5	20.9	14.6	18.5	11.5

자료: 한만길 등. 2008.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⁹ 교육인적자원부. 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 또한 농촌학교에 장기근무하고자 하는 교사 비율은 40% 정도였고, 도서벽지로 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44%의 교사가 타지역에 거주하며 통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자녀교육(37%)이나 문화생활(22.6%)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학교 교사들은 농촌학교의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공문처리가 많다’, ‘잡무로 수업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한만길 2008)<표 2-5>.

표 2-5. 농촌학교 교사의 장기근무 의사 및 타 지역 거주 비율(%)

지역 구분	장기근무 의사	타 지역 거주
읍지역	44.3	41.6
면지역	37.4	47.5
도서벽지	31.3	41.5
전체	40.4	44.2

자료: 한만길 등. 2008.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일이 너무 많아요¹⁰

시내에 비하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업무가 5배 정도 많은 거 같아요. 거기선 한 가지만 맡았지만, 여기는 인원 수가 적으니까(D초등학교 교사). 그런데 사무가 좀 많지요, 업무가. 공문이 와도, 아침 10시쯤 와도 12시까지 보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한 주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방과 후학교만 하지만, 먼저 6학급 학교에서는 윤리업무 다하고 또 보건업무 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공문 쓰다가 볼 일 못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시간을 많이 빼먹지요. 특히 공문이 그래요, 급하게 갑자기 오는 게 많으니까(K초등학교 교사)

- 농촌 학생은 도시지역에 비해 보습학원이나 예체능학원 등 사교육시설이 부족하여 도시 학생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며, 이는 도농 간 학력

¹⁰ 한만길 등(2008)의 보고서의 교사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차이를 심화시켜 도시 유학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박대식 2009).

- 기초생활권¹¹ 세 유형 간 사교육 여건(컴퓨터 학원, 보습 학원, 예능학원)을 비교한 결과 농산어촌이 도·농연계형이나 도시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표 2-6>.

표 2-6. 농촌과 도시의 사교육 여건 비교

사교육 지표	기초생활권			평균
	농산어촌형 ^a	도·농연계형 ^b	도시형 ^c	
컴퓨터학원 분포(개소/km ²)	0.0	0.0	0.1	0.0
보습학원 분포(개소/km ²)	0.0	0.3	2.3	0.7
예능학원 분포(개소/km ²)	0.1	0.3	2.5	0.8

a: 인구 10만 명 미만 군 지역으로 농산어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

b: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구성된 일반시나 농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 20만 명 미만의 일반시, 인구 20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 중소도시와 연계가 많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군 지역

c: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며 대도시 통근·통학권역에 포함되는 시 지역과 인구 20만 명 이상의 거점도시 지역

자료: 송미령, 김광석, 박주영. 2010.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구성.

- 이에 따라 농촌지역 학부모의 자녀의 사교육 기회 만족도도 도시지역 학부모에 비해 낮았다(박대식 2009). 사교육 기회에 대하여 도시지역 학부모의 불만족 비율이 29.7%(만족 13.5%)인데 반해, 농촌은 46.7%(만족 7.0%)였다.

¹¹ MB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서는 전국을 광역시 이외 지역을 기초생활권이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권내에서도 시·군 단위별로 인구규모와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 기준에 의해 도시형 기초생활권, 도·농연계형 기초생활권, 농산어촌형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교육 성과

- 소규모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교사들의 근무기피, 학교 외 사교육 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도·농 간 학력격차가 발생하였다.
- '02~'07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면 도시와 농촌 학생들 간의 기초학력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 학생의 기초학력이 도시 학생에 비해 낮았다. '07년 조사결과를 보면 읽기 및 쓰기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읍·면지역의 비율이 중소도시의 2배 이상이었다<표 2-7>.

표 2-7. 지역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수 및 비율

단위: 명, %

영역	지역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 수	미도달 비율
읽기	대도시	1,079	3.3	309	3.1	288	2.7	262	2.9	214	2.4	213	2.4
	중·소도시	726	2.7	141	2.2	276	2.8	114	2.0	123	2.2	145	1.6
	읍·면지역	681	5.5	216	5.2	109	3.9	196	4.2	124	2.8	102	3.6
쓰기	대도시	914	2.8	338	3.4	275	2.6	228	2.5	161	1.8	130	1.5
	중·소도시	630	2.3	173	2.7	248	2.5	109	2.0	113	2.0	87	1.0
	읍·면지역	615	4.9	264	6.3	118	4.2	176	3.8	113	2.5	56	2.0
기초 수학	대도시	2,066	6.3	454	4.5	452	4.2	414	4.6	332	3.7	214	2.4
	중·소도시	1,599	6.0	271	4.3	413	4.2	208	3.7	222	4.0	208	2.4
	읍·면지역	1,266	10.2	339	8.1	214	7.6	348	7.5	288	6.4	102	3.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8. '07년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7. 15.)

- 농촌지역 주민의 자녀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낮았고, 이는 이촌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촌지역 주민의 자녀 교육여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13.9%(불만족 36.0%)로 도시(만족 20.5%, 불만족 24.3%)보다 낮았다.
- 농촌 주민들의 이촌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 교육이었다<표 2-8>.

표 2-8. 농촌 주민들의 주요 이촌 이유(%)

구분	이촌 이유	2003년	2005년	2007년
전체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3.5	3.2	11.9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29.9	30.5	39.5
	소득이 적어서	30.2	31.1	13.8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25.2	19.2	9.4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1.9	7.4	8.6
40대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2.2	2.2	1.7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37.8	45.1	55.1
	소득이 적어서	26.7	22.5	13.1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25.6	13.8	3.6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4.4	9.3	11

자료: 농촌진흥청. 2003~2007. 농촌생활지표조사

제 3 장

농촌학교 관련 정책

-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 추진된 과거 농촌학교 정책, M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농촌학교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과거 농촌학교 관련 정책

-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문맹퇴치와 초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시기였다. 1950년대 중반 초등의무교육의 본격적 추진으로 학교 설립이 본격화되었다.
- 1960~1970년대는 중등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도·농 간 교육격차도 확대되는 시기였다. 경제개발에 따른 농촌인구의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인구의 감소와 아울러 농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급격한 산업화로 1970, 1980년대 들어 인구의 도시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농촌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1982년부터 농촌학교 통폐합정책이

추진되었다. 학교 폐교가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폐교 반대 지역주민운동이 발생하는가 하면, 소규모학교가 교육적 측면에서 가지는 장단점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농촌 학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1985년 도서벽지, 1994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중학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¹².

- 1990년대 들어 농촌 교육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1994년의 농어촌발전대책에 담겨졌다. 1994년 WTO협정 체결에 따라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표 3-1>.

표 3-1. ‘농어촌발전대책’의 교육여건 개선 대책과 추진실태

기본방향	세부대책	추진실태
교육여건 개선	-시설 개선 -공공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컴퓨터 지원 -통학버스 지원 -초등학교 급식 확대	1996년부터 실시 1995년부터 실시 1993~1995년 전면 보급 학교 통폐합 시 지원 1997년 100% 실시
고교 육성 및 우수교사 유치	-군 단위 고교 집중 육성 -농촌근무교사 인사상 우대 / 해외 연수 확대 -농촌고교를 공립전문대학으로 개편	1995년부터 지원 농촌지역 가산점 1994년 도입 1996년 8개교 사업 추진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및 학군 조정	-대학 특별전형 허용 -농과계 동일계 대학진학 확대 -도·농 통합형 학군 조정	1996년 특례입학 실시 종전 유지
교육비 부담 완화	-고등학교 학비 지원 확대 -도시에 농촌 학생 기숙사 건립 -농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용자	1997년 읍 및 일부 시 지역 포함 1995년부터 도에 1개소씩 건립 학기당 100만 원

자료: 농림부, 1997. 농정개혁백서

¹² 전국적으로는 2002년부터 중학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어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1999)로 선정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2006)에 포함되었다.
- 2000년대 들어 농촌 문제와 농촌 교육 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자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¹³⁾가 농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핵심과제의 이행을 담은 「농어촌교육발전법(안)」을 제안하였으나, 그 내용은 농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포함되었고, 제시된 세부과제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2005~2009)에 포함되었다<표 3-2>.

표 3-2.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교육부문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추진과제	세부내용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우수고교 집중 육성 및 대학특별전형 확대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 -농산어촌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 강화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 경감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전 농어가로 확대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농산어촌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방안 검토 -농산어촌 장애아 교육 지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농산어촌학교 교원 확보 -농산어촌학교 교원 우대 -농산어촌학교 시설, 설비, 교구 등 지원 -교육정보화 지원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설치 -농산어촌 주민들에 대한 취미·여가활동 지원 강화

자료: 재정경제부 외. 2005.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p.24-28. 재구성.

¹³⁾ 농촌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

2. 최근 농촌학교 관련 정책

- MB 정부는 농촌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정책 측면에서는 ‘교육복지정책’(2008. 12.)¹⁴,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2009. 9)¹⁵이 있고, 농촌 정책 측면에서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09.12.)하에 추진되는 정책 등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중에서 주요 농촌학교 관련 사업위주로 살펴보았다.

2.1. 적정규모학교 사업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MB 정부에서도 계속되는데, 이는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더불어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¹⁶, 통합운영학교 육성,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통폐합·이전 등에 따른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통폐합 본교나 폐교된 지역의 학생·주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3개년(’10~’12)에 걸쳐 500개 정도의 학교를 통폐합·이전·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지역발전계획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한다.

¹⁴ 2008.12.17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총 54개 과제에 5년(’08~’12)간 약 17조 2,239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¹⁵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9.16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¹⁶ 2009.11.9 ‘적정규모학교 육성 선도군(郡)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9개 군을 선정하였다.

2.2. 전원학교

- 농촌 소재 소규모 초·중학교 중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고자 2009년 시작된 사업(사업기간: '09년 9월 ~ '12년 2월)으로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력 배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
 -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지역주민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 모델을 창출한다.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입되는 인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산어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전원학교로 육성한다.
- 전원학교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 지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지원(매뉴얼 개발, 학교 컨설팅, 운영시스템 변화 및 성과관리) 등이 이루어지며, 이 사업을 통해 면 소재 61~200명 규모의 초·중학교 중 110개교가 학교당 사업성격 유형에 따라 3~20억 원을 지원받는다.

2.3.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09년 시작된 사업이다(사업 기간: '09.9월~'11.8월). 이 사업은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에 주민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토록 함으로

써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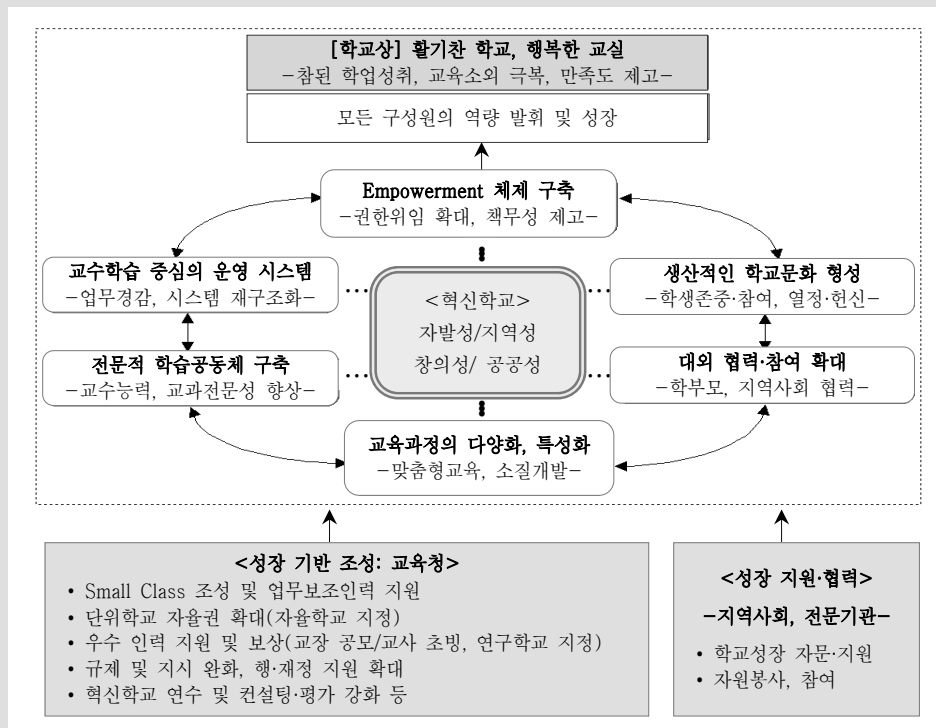
- 지역교육청당 3~5개 평생교육 거점 학교를 지정하여,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를 위해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연수, 컨설팅 등 제도적 기반 확충 지원이 이루어진다.

2.4. 연중돌봄학교

- 교육·문화 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하고 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학교를 대상으로 365일 교육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시작한 사업이다(사업기간: '09년 ~ '11년).
- 이 사업은 농촌학교가 ①기초생활안정망(급식, 교통, 건강관리 등)을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②기초학력 미달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③사회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고, ④심리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도모하고, ⑤특기적성교육을 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기 중에는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 주말에는 체험·생태학습·봉사활동, 방학 중에는 돌봄교실, 영어캠프 등을 운영한다.
- 전국 군(郡)의 면지역 학교의 12%인 378교에 3년간 평균 10억 5,000만 원(시·도교육청 대응투자 포함)을 지원한다.

혁신학교17

혁신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이 2009년부터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①교원의 자발성과 학부모의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 ②학생과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 ③입시교육 및 사교육을 극복하고 교육내용의 다양화와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소수의 수월성에서 다수를 위한 수월성교육, ④교육소외, 격차 해소 등 학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구축, 대폭적인 행정권한 위임으로 자율성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학교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과 산업화 시대 학교운영의 틀에 머물렀으나 학교공동체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적 본질에 충실한 토론과 협력이 활성화된 학교 자율화 정책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직원 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별,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사 스스로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적인 수업과 연수를 운영하며, 불필요한 행사와 회의에 대한 과감한 축소와 행정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교원들이 오로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과 학교장에 집중된 행정권한을 전체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한 민주적 권한 체제로 변환하며,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학생인권 개념 적용, 정서와 감수성 발달 프로그램을 중시하며, 학부모·지역사회·혁신학교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5. 기숙형 공립고

- 농촌지역사회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돌아오는 농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뿐 아니라 교육 낙후지역에 기숙형고교 150교가 선정·지원된다. 2010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국정과제의 지속적 추진을 유도한다.
- 이 사업을 통해서 학교운영 프로그램 개발, 운영매뉴얼 개발, 교직원 연수 등이 지원된다.
 - 정규 및 방과 후 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 개발, 기숙형 공립고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각종 연수 지원
 - 기숙형 고교 정보 공유, 우수 사례 개발·보급, 안정적 정착방안 협의 등을 위한 기숙형고교협의회(가칭) 구성·운영

2.6.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정책

- 교육 수요자로서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와 동시에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MB 정부는 그동안 개별적·단편적이었던 학부모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정책으로 체계화하여 학부모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 학부모 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정책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선진화’를 비전으로 하며 정책 목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학부모의 역량강화로 가정교육 충실, 학부

17 경기도 교육청. 2009. 혁신학교 추진계획안.

모의 참여 확대로 학교교육 질 제고)’을 삼고 있으며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학부모 교육 강화: 학부모 교육, 학부모 리더 육성
 - 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부모회 활성화, 학부모의 학교교육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 학부모 서비스 강화: 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학부모의 학교 방문 및 상담기회 확대,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우수 학부모회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 우수 학부모회 지원: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에 2,000개 우수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500만 원씩 지원 예정
 - 평생교육 및 방송·온라인을 통한 학부모 서비스 활성화 추진
 -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추진: 학부모 공동체가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자녀들을 함께 교육·보호하는 자발적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자녀교육관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

2.7.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2010년부터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2차 기본계획의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부문은 ‘농어촌 특성을 살린 교육 기반·교육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우수학교 육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기회 확대로 설정하였다. 주요 세부과제는 <표 3-3>과 같다.
- 이 계획하에 교육과학기술부 주도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연중돌봄학교

육성, 농어촌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숙형 학교 확대 외에도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우수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강화,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유치,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 및 용자 확대,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등이 아울러 추진된다.

표 3-3.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교육부문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

추진과제	세부내용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학교 육성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연중돌봄학교 육성 -농어촌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숙형 학교 확대 -농어촌 평생교육기반 확충 -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활성화
공교육 강화	-우수영어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강화 -농어촌 학교 우수교원 유치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농어업인 자녀 등 학자금 지원, 용자 확대 -급식비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 -지역균형 선발제 확대 유도

자료: 재정경제부 등, 2009.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안). 재구성.

2.8. 도농교류 계획

- 농림수산물부부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와 농어촌 만들기’라는 비전하에 도농교류의 추진을 위한 2009년 12월초 「도농교류 5개년(’10~’14)계획」을 발표하였다. 도농교류 활성화 대책 중 농촌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내용들로 다음이 있다.

- 초·중등학생 교류사업 강화
 - 초·중등학생 농어촌체험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2010)
 - 농어촌 유학 활성화사업 추진(2010, 시범사업) ⇒ 2011년부터 본사업화하여 지역학교 살리기와 연계
- 농어촌 체험·휴양기반 확충
 - 학교교육과 연계된 농어촌 학습활동을 운영하는 교육농장 육성
- 체험·휴양사업 품질관리 및 전국 브랜드화
- 도농교류 조직화, 협력체계 구축
 - 관계 부처 간 도농교류체계 구축, 협력사업 추진
 -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 방안

3. 시사점

-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조는 불변이다. 대신 학교 통합에 따른 통학시설 지원과 더불어 적정 규모화된 학교에 대한 각종 제도적,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내실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농업·농촌 정책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소규모학교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난 30여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조는 당분간 변화하기 힘들 듯 하다.
- 최근의 농촌학교 정책의 큰 흐름은 농촌학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연계한 총체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원학교, 돌봄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설치·활성화 등의 사업을 보면, 학교가 학교 교육활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조를 변화시키기 힘들다면 기존의 소규모 학교가 더 이상 통폐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주체가 농촌학교를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농촌학교를 살리려는 많은 교사, 시민단체의 노력의 결실이 최근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구현되어, 주요 주체가 참여하여 농촌학교를 살려내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에 다가가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교육계에 대한 수동적 냉소주의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학교를 다시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제4 장

농촌학교 활성화 실태 조사

- 이 장에서는 활성화된 농촌학교에 대한 사례 조사와 더불어 농촌학교 활성화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농촌학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구명하였다.

1. 사례 조사

- 언론(신문, TV)보도, 관련 선행연구,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정책에서 성공 사례로 언급된 학교들 중 5개 학교(남한산초등학교, 거산초등학교, 면온초등학교, 조현초등학교, 이성초등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면담 일자를 정한 후 연구진이 방문하여 학교장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조사 내용 중 학교가 다시 활성화되기까지의 과정과 학교 운영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각 사례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다.

1.1. 남한산초등학교¹⁸

○ 학교 활성화 과정

- 2000년 3월, 전교생 27명 3개 복식학급으로 폐교가 결정된 학교에 새 교장이 부임한 이후 지역사회 유지(대학 교수, 마을 이장, 동문회장)와 성남 시내 시민사회단체(동화를 읽는 어른 모임)가 주축이 되어 학교를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2000년 10월부터 교장이 성남 지역 학교를 일일이 방문하여 학부모 대상으로 남한산초등학교로의 전입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후 뜻 있는 교사들이 합류하였고, 20여 차례 학부모 토론회를 통한 남한산초등학교 만들기 기초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도교육청, 시교육청, 교육시민단체, 도의회 등이 참여하여 새 학교 만들기 방안을 협의하였다.
- 2001년 3월 103명의 학생으로 6개 학급 개학, 유치원 재개원 등으로 2009년 12월 현재 15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학교의 특징

-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함께 일구는 학교: 교사, 학부모 공동으로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교육계획을 입안·평가하는 데 학부모를 참여시키며, ‘남한산 학부모 다모임’, ‘남한산 아카데미’ 등 학부모와 교사 공동의 정기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의 다양한 체험중심 활동에 학부모 및 전문가 지원 인력풀(30명)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고 있다.
- 자율적인 교사문화: 민주적인 교사 주례회의, 방학 중 교사 자체 워크숍 등 교사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자율적인 교사 문화가 존재한다.

¹⁸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소재(<http://www.namhansan.es.kr/>)

- 특색있는 학교 프로그램 운영: 통합학습(교과통합, 학년통합, 영역통합) 프로젝트 수업, 블록수업시간제(80분 수업, 30분 휴식) 운영 및 토요체험 학습, 여름·겨울방학 계절학교, 시설 봉사체험 등 정규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재량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남한산초등학교 인근 지역사회의 변화¹⁹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남한산초등학교가 알려지면서 전입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 살리기를 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점점 밀려드는 전입생때문에 지역 사회도 변하기 시작했다.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학교 주변은 신·증축 불가 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나마 상가지역이라 음식점이나 찻집 외에 일반 주택은 거의 없다. 대개 전입하는 가정은 상가의 반지하방, 도심으로 떠난 사람들이 남겨놓은 빈집, 무허가 집에 세를 드는데 그나마 물량이 많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남한산초등학교 학구는 산성리를 포함해 주변 세 개 리(里)이다. 가족 전체가 이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하고 부모의 전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이도 전학 보내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지만 전입학의 문의와 시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덕분에 지역 사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학교는 다시 지역 사회의 문화와 소통의 중심으로 서게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남한산성 지역에 활력을 주었다. 시들었던 마을 축제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했다.

일부러 오는 전입생도 있지만 지역 주민 중 도시로 떠났던 자녀들이 학부모가 되어 다시 시골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 마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생활과는 다른, 시골 생활의 독특한 삶을 즐기고 있다.

1.2. 거산초등학교²⁰

○ 학교 활성화 과정

- 1992년 본교에서 분교로 축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당국은 인근 학교에 통폐합하려고 하였다. 이에 2001년부터 천안 아산지역의 학부모 모임(독서 모임)의 주도로 활성화가 시도되었다. 4학급 34명의 학생이 재학하여 복식수업을 해야 했던 거산 분교는 과밀화된 도시 공교육의 한계를 절감한 교사와 지역사회 인사가 합세하여 2002년 96명의 학생이 전학한다. 이후 본교 격상운동을 실시하여 2005년 3월부로 본교로 격상하였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최초 사례이다²¹.
- 현재 14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35명의 지역 학생 외에 대다수 학생이 천안, 아산 등에서 통학한다.

○ 학교 특징

- 상향식 학교 운영 풍토²²: 대다수 교사가 전교조 출신으로 농촌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고, 농촌학교 교육과 관련한 체계적 연수를 받아왔다. 학부모 역시 대안적 학생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 이런 교사와

¹⁹ 임연기 등. 2009a. 농산어촌 학교운영 우수사례. 재인용

²⁰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악리 소재(<http://www.keosan.es.kr>)

²¹ 1935년 설립 이래 54회 졸업생을 배출해 온 거산국민학교는 인구의 도시 유출로 인해 1992년 분교로 전락하였다. 이후 인근 송학면 동화리에 위치한 동화분교장과 함께 통폐합하려 했으나 동화분교장만 송남국민학교에 통폐합되었고 거산분교장은 통폐합에 반대하여 왔다. 그 후 1996년 송남국민학교가 송남초등학교로 개칭되면서 거산분교장 통폐합을 놓고 이를 추진하는 교육당국과 학교를 지키려는 학부모들의 끈질긴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2002년 들어 거산분교장은 새로운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임연기 등. 2009a).

²² 이를 위해 교장은 권한 위임형 리더십, 상황적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한다. 열의가 있는 교육주체들의 역량을 꺾거나 다른 방향으로 힘들게 끌고가려 하지 말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열의를 다양한 토론과 참여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학교교육이 상향식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교내 갈등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 없어졌다.

-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지역사회·전문가·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예: 텃밭 가꾸기(유기농민 협력), 동물 기르기(수의사 지도), 꿀벌 기르기(양봉 전문가 협력), 거산 가족 한마당(학부모 참여) 등).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도서관 사서도우미, 학습부진아 동아리, 생태학습도우미, 각종 동아리 지도교사로 활약하고 학생 통학을 위해 차량(45인승 2대)을 운영하고 있다.
- 독서·글쓰기 프로그램과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단위 시간이 주당 3시간 이상인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환경생태교육, 농촌체험, 미술체험, 문화예술체험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재미와 즐거움이 넘치는 계절체험학습(여름 체험학습 3일, 가을 체험학습 3일), 행사체험학습(뒤뜰야영, 학교축제) 등도 실시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거산초등학교에는 매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연수가 있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에 대한 시각을 일치시키고 교육철학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학부모의 자기자식에 대한 이기주의와 같은 거시적인 학교 운영의 철학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교육법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산의 교육주체로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간다.

연수내용	- 주제가 있는 월별 연수: 생태교육, 발도르프 교육, 성교육, 문학교육, 예술교육, 생태철학, 미디어비평교육 - 담임과 함께하는 학년별 연수 - 정기연수
실시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대상	거산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1.3. 면온초등학교²³

○ 학교 활성화 과정

- 2005년 폐교 직전(당시 학생 21명)이었던 학교로 당시 강원도교육청은 봉평면소재지의 봉평초등학교와 통합을 추진했고 학부모들도 폐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²⁴. 2006년 새로 부임한 교장은 학교 인근의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지역 내 레저휴양시설업체,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들을 찾아다니며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교사들이 열성적으로 학교 회생에 발 벗고 나서자, 모두들 흔쾌히 후원을 약속했다. 면온초등학교가 다시 살아난 이후 봉평면 주민, 지역 출신자, 동문, 지역유지 등의 힘을 모아 봉평중·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해 120억 원의 투자도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초등학교 졸업 이후 외지(원주)로 빠져나가던 학생들을 지역 학교로 연계시킬 수 있게 되었다.
- 2009년 12월 현재 1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이 중 18명만이 지역 학생이며, 나머지는 외지 학생으로 서울·경기권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 학교 특징

- 학부모의 교육 참여: 대다수가 교육을 이유로 외지에서 유입해 온 부모들이기에 일상의 무료함과 더불어 학교 교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비판적 시각)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학교는 이들의 교육 열의를 긍정적인 학교 참여(학교 발전의 동반자)로 활용하였다.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동시에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였으며, 재능 있는

²³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http://www.meonon.es.kr/>)

²⁴ 당시 학교운영위원장(조성철)은 “당시 시설 투자가 안돼 비가 줄줄 새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복식수업까지 받게 되자 학부모들이 폐교시키라고 민원을 낼 정도로 여건이 열악했다”고 말했다(농민신문. 2009. 3. 23)

학부모를 학교 강사(13명)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각종 기업의 지원(8억원)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강사 초빙 프로그램에 평생교육차원에서 학부모를 참여시켰다(오전: 학부모 교육, 오후: 학생 교육).

- 지역자원의 활용: 민족사관고 학생·인근 스키장 직원·작가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
- 5G(Gaily, Genius, Global, Green, Governance) 프로그램: 야간돌봄, 주말 공부방, 멘토링²⁵ 학습 등으로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더불어 돌봄기능을 가미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Gaily 교육). 이 밖에 영어교육(Global 교육), 재능교육(Genius 교육), 체험중심 환경교육(Green 교육)과 더불어 찾아가는 문화활동(서울 소재 각종 문화·예술시설 방문, 지역의 명소 방문), 찾아오는 문화활동(기업체, 각종 동호회, 대학 동아리의 학교 방문을 통해 연극, 음악 발표회 등 개최) 등을 실시한다.

농촌학교에서 학생들이 떠나는 이유²⁶

학부모와 학생들이 (농촌) 학교를 떠난 이유가 단지 사회적 환경때문만은 아니다. ‘학교의 가치’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제대로 논의하거나 합의해 본 적이 없고, 기존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이 학생들에게 흥미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 내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 내 관료주의는 ‘학교의 사사화(私事化), 교육의 행사화, 교사의 석고화’로 풀어서 말할 수 있다. 학교의 사사화는 학교와 교실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그들(교장 또는 교사)만의 왕국’을 뜻한다. 교육의 행사화는 인사권을 지닌 교육청에 잘 보이기 위해,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기보다 각종 이벤트성 행사에 치중하는 학교 행정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석고화는 ‘그들만의 왕국’에 갇혀 전문성을 상실해 가는 교사 집단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관료화의 근간엔 무분별한 ‘공문’이 자리잡고 있다. 한 달에 한 교사가 받게되는 공문은 200여 통에 달한다. 읽기에도 벅찬 개수다. 과도한 공문은 교사가 학생에게 집중하기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집중하게 만든다. 공문 처리에 바쁜 교사들은 수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교장이나 교감도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중심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할 학생은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²⁵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과 1주일에 두 번씩 교류하게 하고 있다.

1.4. 조현초등학교²⁷

○ 학교 활성화 과정

- 학부모 대부분이 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이 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린 적은 없지만 도시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늘 정체돼 왔었다. 하지만 2007년 교장 공모제²⁸에 따라 전교조 출신의 한 평교사가 새로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07년 9월 교장이 부임한 후 6개월 동안 교장과 교사들은 새로운 학교 탄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노력으로 이 학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꿈자람 교육과정’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교육비 추가 부담 면제 등 확실한 교육 복지를 실현시켰다.
-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 조성, 초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학생 수가 2006년 98명에서 2009년에는 130명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2년간 150~180명의 전학 상담을 받았지만, 학교 수용 능력 부족, 학교 주변에 새로 들어와 살 집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20명 정도만 추가로 받았다.

○ 학교 특징

- 조현 꿈자람 교육과정: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 9형태(디딤돌 학습, 문화예술학습, 생태학습 등)와 학력향상, 독서교육, 인성교육 분야 등 10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 숲속 테마공원을 조

²⁶ 작은학교 교육연대 대표(서길원) 인터뷰(한겨레신문 2009년 5월 10일자 기사)

²⁷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소재(<http://johyeon.es.kr/>)

²⁸ 승진에 의한 임용방식을 벗어나 공개모집을 통해 유능한 교장을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정년퇴직을 앞둔 교장이 있는 학교가 우선대상이며, 대상학교는 학부모의 찬반의견을 수렴해 공모제 신청여부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2007년 9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392개 학교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공모제 유형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의 세 가지가 있다.

성하여 산책로, 생태 쉼터,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농장, 생태연못, 테마 식물원을 조성하여 체험·관찰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 꿈나무 학교: 저소득, 결손가정(전체 학생의 25%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과 정서지도를 해주는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꿈나무 학교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 학년 전담제: 전체 교사가 1~6학년 중 1개 학년을 연속적으로 담임을 맡는다. 이를 통해 매년 학년 교육과정의 수정과 재구성, 교과별 수업 모델 적용, 학습자료와 학습지 개발, 학습준비물 완비, 학년별 필독도서 및 교과관련도서 구비, 교과과정의 지역화 및 특성화 등 학년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다.

작은학교 교육연대²⁹

농촌 소규모 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매년 두 차례씩 각 학교의 사례를 공유하고 작은 학교가 나아갈 방향과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접근을 토론(작은학교 간 워크숍)하는 모임(2005년 7월 출범)이다. 회원 학교로는 남한산초등학교, 거산초등학교, 조현초등학교, 삼우초등학교, 상주남부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별량초등학교송산분교 등이다.

작은학교가 하는 일은

- ① 비교육적 학교문화를 타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일
- ② 작은 학교 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천활동을 하는 일
- ③ 지역사회와 학교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일
- ④ 작은학교 회원학교 간의 연대와 확산을 위한 지원 활동

작은학교 교육연대가 추구하는 학교개혁 운동은

- ① 실천적 학교개혁 운동을 통해 미래 교육의 답을 찾습니다.
- ② 소외된 곳으로부터 학교 교육의 희망을 다시 찾습니다.
- ③ 거점학교에서 성공적 사례를 만들고 네트워크 운동을 통해 확산합니다..
- ④ 공립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개혁 모델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찾아갑니다.
- ⑤ 자발적인 교사들의 공동 실천과 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²⁹ <http://smallschool.net>

1.5. 이성초등학교³⁰

○ 학교 활성화 과정

- 1946년 개교 이래 한때 전교생이 200여 명에 달했지만, 농촌인구 감소와 더불어 2007년에는 전교생이 25명으로 급감해 폐교위기를 맞았었다. 2007년 평생교육담당 장학사 출신의 현 교장이 부임하면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농촌학교 활성화에 접목시켰다. 총동창회를 다시 부활시켜 학교 살리기에 동문이 나서게 만들었고, 면장·군의회 의원 공동으로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교를 살려냈다.
- 2007년 폐교 직전이었던 학교(학생 수 25명)는 3년 만에 학생 수 125명의 학교가 되었다. 지역 주민 자녀 외에 100여 명의 학생이 전주시 등 외지에서 유입한 것이다. 현재 1, 2학년은 전학생을 받지 못할 정도이고, 학교 입학에 위한 우선권을 받기 위해 유치원부터 너무 몰려 선별적으로 받고 있다.

○ 학교 특징

- 주 5일제 수업 실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교시 수업 실시 및 방학기간을 단축하여 주 5일 수업을 한다. 그리고 토요 설레임학교(가족단위 교육: 8개 프로그램), 일요 신바람학교, 야간 반딧불학교, 찾아가는 마을사랑학교 등 모든 토요일, 휴업일에 학부모·주민 평생학습 및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인근 교회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아리랑 한글사랑방, 노인건강교실, 어르신 컴퓨터 교실, 이성골 소리문화교실, 이성골 바둑문화교실, 이성 아카데미(바이올린, 수영, 태권도), 이성

³⁰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소재(<http://www.iseong.es.kr>)

콜 선비문화체험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연간 790여 명이 참여).

2. 설문 조사

2.1. 조사 및 분석 개요

- 일반화시킬 수 있는 농촌학교 활성화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명하기 위해 농촌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된 총 85개 학교사례 중 불성실 응답사례 3부를 제외하고 82개 사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 설문지는 크게 학생 수 변화 상황과 농촌학교 활성화 관련 변인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농촌학교 활성화 관련 변인을 한만길(2008), Barely 등(2007), Masumoto(2009) 등의 선행 연구와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농촌학교 활성화 관련요인은 크게 7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도시와의 거리, 지역주민의 학력·경제력 수준, 지역의 사교육·문화·체육시설 여건, 학교규모, 결혼/취약계층 비율, 다문화 가정 비율
 - 교장의 기본특성: 성별, 연령, 교육경력, 현재 학교 근무년수, 장학/연구관(사) 경험, 최종학력, 교장임용유형, 교원단체가입경험, 거주지역
 - 교사의 기본특성: 성별, 연령, 교직경력, 현재 학교 근무년수, 가입교원단체종류, 거주지역
 - 교장의 역량: 학교비전, 리더십유형, 교사와의 교류, 학부모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농촌개발사업 참여
 - 교사의 역량: 농촌학교에 대한 전문성, 교장 리더십에 대한 참여,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 농촌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 학부모/지역주민의 역량: 학교에 대한 지원,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 혁신의식, 자녀에 대한 기대
- 학교 개설 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기초학습 부진아, 성적우수자, 결혼가정, 자존감 회복, 직업체험, 문화·예술 체험, 지역배우기, 학생자치/동아리, 방과 후 공부방, 도시학교 교류,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주민 프로그램(학업/진로상담, 사회교육, 문화·예술·체육, 시설개방)

농촌학교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 한만길 등(2008)이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농촌학교 혁신사례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 혁신의 계기와 동력을 ①새로운 학교비전 설정, ②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③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의, ④학부모의 참여와 협력 유도, ⑤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⑥각종 연구학교, 시범사업 참여 여섯가지로 정리하고 있었다.

- Barley 등(2007)의 ‘농촌학교 성공요인’ 연구에서 매우 열악한 농촌 환경에서도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교를 선정하여 농촌학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이들 학교의 성공 요인을 4개 영역에 19개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그들은 성공사례 학교 방문 조사를 통해 대다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 ①학교와 지역사회의 밀접한 관계, ②교사들의 장기 근속과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 ③ 교장의 리더십, 학생에 대한 자료 활용, 부모의 참여, 학교의 학업성취 지원 구조,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강조, 돌봄 문화 등을 들었다.

리더십	- 공유된 미션과 목표 - 변화 촉진자로서 교장 - 수업 리더로서 교장
수업	- 개별화된 수업 - 수업을 위한 다양한 자원 -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연계 -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 기초영어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 - 학생의 학습에 위한 구조적 지원
교사전문성	- 교사 채용 - 교사의 근속 - 교사 전문성 개발 - 교사간 협동 - 학교(교장) 리더십에 교사의 적극적 참여(몰입)
학교환경	- 학생 자료 사용 - 학생들의 높은 기대 - 부모의 참여 -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 훈육

- Masumoto(2009)는 고빈곤지역이지만,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농촌학교에서의 교장의 리더십과 학교지역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성공적 농촌학교에서 발견되는 공통특징을 ①분배적 리더십, 수업지원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등 급격히 변화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리더십, ②학교의 미션을 성취하고, 학생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매커니즘, ③명확하고 직접적인 수업, 표준, 기대에 대한 강조, ④교사들의 능력, ⑤학생의 다양한 요구 지원시스템 등으로 정리하였다.

- 통계분석에 사용된 각 변인의 정의는 <표 4-1>과 같다. 농촌학교 활성화의 척도는 최근 5년간(2005~2009) 학생 수 변화를 기준으로 하였다. 2005년과 2009년도 학생 수는 학교일람표와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의 각 학교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표 4-1. 통계 분석에 사용된 변인 정의

변인	변인 정의	
종속변인	학생수 변화a (학생수 감소=0, 학생수 유지=1, 학생수 증가=2)	
기본특성 변인	학교와 지역사회 특성	도시와의 거리(1=30분이내, 2=30분~1시간, 3=1시간이상)
		지역주민의 학력 수준(1=매우낮음...5=매우높음)
		지역주민의 경제력 수준(1=매우낮음...5=매우높음)
		사교육·문화·체육시설(1=매우부족... 5=매우충분)
		학교규모(학생수)
		결손가정 학생 비율(= 결손가정학생수/전체학생수)
		취약계층 학생 비율(= 취약계층학생수/전체학생수)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 다문화가정학생수/전체학생수)
	교장특성	성별(1=여, 2=남)
		연령
		교육경력
		현학교 근무년수
		농촌학교 근무경력
		근무 농촌학교수
		장학사(관) 경험(1=없음, 2=있음)
		연구사(관) 경험(1=없음, 2=있음)
		최종학력(1=학사, 2=석사, 박사)
		교장 승진형 여부(1=비 승진임용, 2=승진임용)
		임용유형 내부형 여부(1=비 내부형, 2=내부형)
		교원단체 가입경험(1= 비전교조, 2= 전교조)
		거주지역(1=학교소재지 주거 2=통근자)

표 4-1. 통계 분석에 사용된 변인 정의(계속)

변인	변인 정의		
기본특성 변인	교사특성	교사성별(남자>여자=0 남자<여자=1)	
		교사연령(40세미만<50세이상=0, 40세미만>50세이상=1)	
		교직경력(10년미만<20년이상=0, 10년미만>20년이상=1)	
		현학교근무년수(4년이상<2년미만=0, 4년이상>2년미만=1)	
		가입 교원단체(전교조<교총=0, 전교조>교총=1)	
		거주지역(소재지<통근자=0, 소재지>통근자=1)	
역량	교장역량	학교 비전	비전존재 여부(1=부존, 2=유존)
			주민참여 여부(1=불참, 2=참여)
		교장 리더십 유형(1=과업형, 2=관계형)	
		교사와 교류	친목도모(1=없음...5=매주한번)
			세미나/단체연수(1=없음...5=매주한번)
		지역 사회와 교류	학교운영위원회(1=없음...5=매주한번)
			학부모/지역주민(1=없음...5=매주한번)
			지역교육청(1=없음...5=매주한번)
			공공기관(1=없음...5=매주한번)
			민간/사회단체(1=없음...5=매주한번)
			타교육기관(1=없음...5=매주한번)
		교장-지역개발사업 참여정도(1=불참 2=참여)	
	교사역량	농촌학교 전문성	농촌학생 이해(1=매우낮음...5=매우높음)
			소규모학급(1=매우낮음...5=매우높음)
			학부모 교류(1=매우낮음...5=매우높음)
			지역자원 활용(1=매우낮음...5=매우높음)
		교장 리더십에 대한 참여(1=매우부족...5=매우높음)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1=매우낮음...5=매우높음)	
		농촌 지역사회 활동 참여(1=전혀불참... 5=매우활발히참여)	
	지역역량	지역사회 의 지원	재정(1=매우저조...5=매우활발)
			인력(1=매우저조...5=매우활발)
			시설, 장비(1=매우저조...5=매우활발)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1=매우낮음...5=매우높음)	
		지역주민의 혁신의식(1=매우낮음...5=매우높음)	
		지역주민의 자녀에 대한 기대(1=매우낮음...5=매우높음)	

표 4-1. 통계 분석에 사용된 변인 정의(계속)

변인	변인 정의		
학교 프로그램	학생 프로그램	별도 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 재구성((1=전혀그렇지않음...5=매우그렇다)
			기초학습 부진아(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성적우수자(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결손가정(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자존감 회복(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직업체험(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문화, 예술(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지역배우기(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학생자치/동아리(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방과후 공부방(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주민 프로그램		도시학교 교류(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방학중 특별프로(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학업/진로상담(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사회교육(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문화,예술,체육(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시설개방(1=없음, 2=활동미약, 3=매우활발)

a: 최근 5년간(2005~2009) 학생 수 변화율($= \frac{2009\text{년학생수} - 2005\text{년학생수}}{2005\text{년학생수}} \times 100$)을 근거로 나누었음.

- 통계분석에 있어 유의미성은 0.1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통상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05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연구는 학생 수 변화와 관계 변인을 광범위하게 탐색한다는 차원에서 0.1 수준으로 하였다.

2.2. 분석결과

-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에서 언급된 주요 요인과 농촌학교의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 65개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변인은 28개였다<표 4-2>.

표 4-2. 농촌학교 학생 수 변화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관련 변인			학생 수 변화(최근 5년간)	
			피어슨 상관계수	유의도
학교/지역사회 특성		도시와의 거리	-0.360	0.001
		지역주민의 학력 수준	0.389	0.000
		지역주민의 경제력 수준	0.313	0.004
		결손가정 학생 비율	-0.203	0.079
교사 기본특성		현재학교 근무년수	0.243	0.032
		가입 교원단체	0.273	0.013
주체 역량	교장 역량	비전존재	0.228	0.041
		학부모/지역주민 교류	0.225	0.042
	교사 역량	농촌학생 이해	0.235	0.034
		소규모학급 운영	0.342	0.002
		학부모 교류	0.300	0.006
		지역자원 활용	0.183	0.099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	0.201	0.070
	지역 주민 역량	재정 지원	0.243	0.028
		인력 지원	0.321	0.003
		시설·장비 지원	0.247	0.025
		학교 행사 참여도	0.379	0.000
		혁신의식	0.368	0.001
		자녀에 대한 기대	0.294	0.008
학교 프로 그램	학생 프로 그램	정규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0.309	0.005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0.307	0.005
		직업체험 프로그램	0.231	0.037
		문화, 예술 프로그램	0.215	0.052
		지역배우기 프로그램	0.217	0.050
		학생자치/동아리 활동	0.218	0.049
		방과 후 공부방 프로그램	0.190	0.087
	주민 프로그램	학업/진로상담	0.377	0.000
		사회교육	0.263	0.017

- 학교/지역사회 특성: 농촌학교의 학생 수 증가는 도시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교에서, 지역주민의 학력과 경제력이 높고, 결손가정학생이 적은 지역(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 교사 특성: 학생 수가 증가하는 농촌학교에는 상대적으로 현 학교에서 근무 연수가 긴 교사가 많고, 전교조 가입 교사도 많았다.
- 주체 역량
 - 학생 수가 증가하는 농촌학교일수록 학교 구성원이 공유하는 비전이 존재하였고, 교장이 학부모나 지역주민과 교류가 많았다.
 - 교사들은 농촌학생에 대한 이해, 소규모 학급 운영 능력, 학부모 상담 등 학부모와의 교류,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의 활용 등 농촌학교 전문성이 높았고,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았다.
 - 지역주민의 학교에 대한 재정, 인력, 시설·장비 측면에서 지원이 많았고, 학교 행사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였으며, 또한 혁신의식도 높았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다.
- 학교 프로그램
 -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일수록 정규 교육과정의 재구성 노력이 있었고,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배우기 프로그램, 학생 자치/동아리 활동, 방과 후 공부방 활동 등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일수록 학부모를 위한 학업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역시 활발하였다.
- 농촌학교의 학생 수 변화를 좀 더 간명하게 잘 설명해주는 변인군을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집단 구분(감소 집단, 유지 집단, 증가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표 4-3>.

- 교사의 학생 상담 등 학부모와의 교류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혁신의식이 떨어지고,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이 활발하지 못하고, 학생의 자존감 회복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할수록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되었다.
- 교사의 학부모와의 교류와 관련한 전문성이 적더라도 소규모 학급 운영 관련 전문성이 높을수록, 지역주민의 학교 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자존감 회복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정도가 낮더라도 학부모를 위한 자녀 학업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수록 학생 수 증가가 촉진되었다.

표 4-3. 농촌학교의 학생 수 변화 관련 변인에 대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변인	학생 수 변화(기준 집단=유지)					
	감소			증가		
	B	Exp(B)	유의도	B	Exp(B)	유의도
상수항	16.428		0.002	4.658		0.458
도시와의 거리	-0.919	0.399	0.179	-3.256	0.039	0.002
지역주민 학력	0.696	2.005	0.351	0.748	2.113	0.488
지역주민 경제력	-0.502	0.606	0.508	-0.335	0.716	0.698
교사전문성: 소규모 학급	1.139	3.122	0.142	3.522	33.851	0.004
교사전문성: 학부모 상담	-1.406	0.245	0.029	-1.900	0.150	0.030
지역의 인력지원	-0.559	0.572	0.243	0.022	1.023	0.967
학교 행사 참여도	0.589	1.802	0.344	1.568	4.797	0.064
지역주민 혁신의식	-1.326	0.266	0.094	-1.481	0.228	0.148
자녀에 대한 기대	-0.549	0.578	0.379	-0.961	0.382	0.254
교육과정 재구성	-1.389	0.249	0.069	-1.661	0.190	0.121
자존감회복 프로그램	-1.824	0.161	0.064	-2.306	0.100	0.053
학업/진로상담	0.982	2.671	0.265	2.926	18.655	0.017

LR $\chi^2=69.446$ df=24 sig=0.000 -2LL=88.007

주: 셀의 음영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관계를 나타낸다.

3. 종합: 농촌학교의 활성화 요인

- 농촌학교의 사례조사를 통해 농촌학교 활성화에는 혁신을 주도한 교장의 리더십, 그 리더십을 따라주는 교사, 이들 학교 구성원이 만들어낸 농촌형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활발한 학교 운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농촌학교 활성화에는 학교의 도시와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교사가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농촌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과 함께, 전문성(학생 이해, 소규모 학급 운영, 학부모와의 교류, 지역자원 활용)을 발휘하면서 학교 변화를 주도하고, 학교장은 학교 발전의 비전을 설정한 후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시켰고, 지역주민은 높은 혁신 의식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력, 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활성화된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자존감 회복, 직업체험, 문화·예술, 지역배우기, 학생자치/동아리, 방과 후 공부방 프로그램 등 도시에서는 사교육으로 보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공교육을 통해 모두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업/진로와 관련한 학부모 상담,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 농촌학교 활성화에는 혁신을 주도할 교장의 리더십(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폐교 직전이던 학교가 불과 몇 년후 학생이 너무 몰려 도시 학생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학교로 바뀐 경우, 그 이면에는 학교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끈 교장의 리더십이 있었다.
 - 교사에게 초임시절 가졌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이들을 움직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전인 교육을 실현하고, 나아가 학부모

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그리고 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학교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를 만들었다.

- 학교 활성화 초기에는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된 후에는 혁신적 학교 문화의 정착을 위해 교사에 대한 권한위임과 학부모와 지역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였다. 특히 교사가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한데, 활성화 이후에는 교장이 중심에 서지 않고 환경 조성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혁신의 분위기가 학교 풍토로 자리잡도록 하였다.
- 농촌 교육에 열정을 발휘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 상당수 농촌학교의 활성화가 교장의 리더십이 먼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교사들이 그 리더십에 동참하여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여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특히 도시 아이, 학부모와 비교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농촌 아이와 학부모를 이해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농촌은 떠나야 할 곳이 아닌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를 한번 걸어볼 만한 곳임을 깨닫게 해주는 교사가 있기에 학교 변화가 가능했다. 또한 학생의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이 반영된 농촌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혁신적인 교장이 떠나간 이후에도 학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학교의 의사결정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풍토를 만들고 지켜낸 교사의 노력이 필요했다.
- 농촌에도 아이들이 미래(희망)를 꿈꾸게 하는 농촌형 교육 프로그램이 구현되어야 한다.
 - 활성화된 농촌학교는 도시 학교와는 달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가정

에서의 돌봄 기능이 가미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더불어 사교육 없이는 힘든 다양한 특기 적성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 자존감 회복을 위한 인성 교육,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 성공해야 하는 이유,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있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및 지역의 성공사례 등 지역 배우기, 지역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은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살만한 곳이고 희망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다. 또한 농촌 지역사회의 사라져가는 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농촌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었다.
-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이 함께하는 농촌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 농촌학교의 혁신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학교를 혁신시킨 교장과 교사가 다 떠나가더라도 지역주민의 혁신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그 학교의 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 참여 풍토 조성을 위해 대부분의 활성화된 학교는 먼저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있었다.
 - 농촌학교를 학생을 위한 교육 이상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오후 5시 이후에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개방하고, 방과 후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교육, 아이들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을 통해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제 5 장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학교 역할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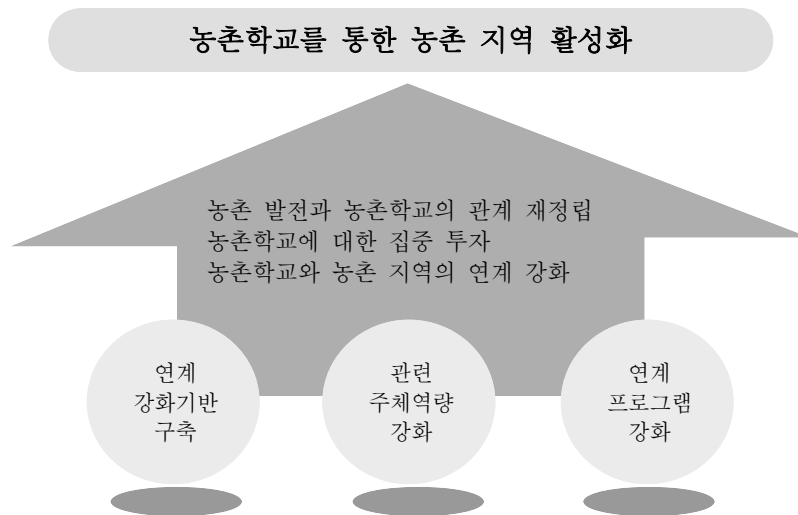
- 이 장에는 농촌학교 활성화 사례 조사와 농촌학교 대상 설문 조사, 농촌학교 교육 관련 전문가 면담 등을 토대로 앞으로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의 연계 강화, 즉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학교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1. 기본 방향

-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 활성화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귀농·귀촌 인구가 많아져 지역이 살아남으로써 농촌학교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농촌학교가 살아나 농촌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도 한다.
 - 지금까지 농촌학교 문제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부차적 문제로 접근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의 많은 농촌학교 활성화 사례는 학교가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농촌 지역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촌학교를 살리는 것이다.

- 학교가 존재하면 농촌의 주민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를 생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결국 학교가 존재해야 농촌이 살 수 있으며 농촌의 주민이 존재해야 ‘느끼며 배우며’ 능동적인 농촌 공간이 만들어져 도시민에게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자리잡으며 다시 찾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농촌 지역개발 차원에서 농촌학교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 농촌학교가 살면 농촌이 살고, 이를 통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다. 도시민 유치에 관심이 많은 농촌 기반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각종 농업·농촌 개발 정책을 수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학교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 농촌은 도시와 달리 학교 이외에 사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의 교육·문화 하드웨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농촌학교에 집중 투자를 통해 학생 및 일반 주민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농촌학교와 농촌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 농촌학교의 방과 후 유희 시설을 지역의 복지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지역의 인재로서 농촌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
 - 지역 주민은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각종 학교 활동에 활발히 동참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 마을은 교육 공간으로서도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강점을 살리고 동시에 지역을 살리는 농촌형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

그림 5-1.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학교 역할 강화 방안



2. 추진 과제

- 농촌학교 활성화 과제를 크게 농촌 발전과 농촌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2.1. 연계 강화의 기반 구축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학교]³¹ 농촌학교와 농촌 지역의 농업관련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농촌에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지사), 국립농산물품질

³¹ 각 과제별로 []안에 주요 시행 주체를 제시하였다.

관리원(지사), 지역농협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 농촌학교는 평소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 시설·장비를 농촌학교의 학생 교육 및 주민 평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농업 관련 기관도 농촌학교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 농업기술센터의 실험·실습포를 활용한 농촌학교의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개발과 농촌학교 연계³²

청정지역 전북 진안군의 주요한 군정 목표는 ‘아토피 퇴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000여억 원을 투자, 아토피 클러스터를 만든다. 6년간 매년 연간 예산의 10% 정도를 아토피 사업에 투자하여 진안군을 대한민국 최대의 ‘아토피 프리존(free zone)’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진안군은 2013년까지 마이산과 용담댐 일대 165만여 m² 부지에 치료와 교육, 연구·레저, 관광, 유통 5개의 주제로 아토피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우선 군은 조림초등학교와 외국초등학교 2개 학교에 6개월 과정의 아토피환경친화학교를 신설한다. 군은 이곳에서 인스턴트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썰매 타기, 연 만들기 등 자연친화적인 놀이와 심신단련 체조 등을 실시해 실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약초동산, 산책로, 산림욕장 등을 갖춘 체험마을 한 곳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진안군은 동향면 능길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초·중생 30명과 부모가 함께하는 ‘아토피 제로 자연학교’를 열었다. 또 전북교육청과 진안교육청의 협력하에 산촌유학 3개월 과정 프로그램도 짜 놓았다. 아토피 체험 시범학교로 정천 조림초등학교와 성수면 외국초등학교를 선정해 황토와 편백나무책상 등 친환경소재로 교실 시설을 개선했다. 초등학교 인근에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약초동산과 산책로, 산림욕장 등 다양한 체험장을 만들게 된다. 또한 아토피 연구 및 제품생산, 아토피 치유·치료, 국내·외 아토피 환자 치유로 의료관광산업의 선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진안군은 아토피케어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을 비롯해 학술대회,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 아토피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32 ‘진안군 대규모 아토피 치료단지 추진’(국민일보 기사 2008. 2. 15.)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촌학교] 농업·농촌 관련 장학재단을 활용한다.
 - 대부분 농촌학교가 받고 있는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한시적 사업 예산으로 사업이 끝나면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농촌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교육활동지원비, 방과 후 학교 운영비,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등 예산이 갑자기 중단되면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교사 수당, 강사 초청에 필요한 경비, 교육자료의 개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사의 연구활동, 연수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농협문화복지재단³³

농촌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유지·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3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설립된 재단이다. 여기에서는 농촌문화사업, 복지증진사업, 장학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³³ <http://jaedan.nonghyup.com/>

- 운영 예산 마련을 위해, 새로이 장학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역의 장학재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농촌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전국적 규모의 장학재단의 사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러한 재단의 사업에 농촌학교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예)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농촌청소년미래재단, 한사랑농촌문화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다솜동지복지재단,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학교의 도시민 홍보를 지원한다.
 -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 요구, 학교 부적응 등 정서상 또는 아토피 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도시학교를 떠나 농촌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도시학교 교육에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고, 최근 다양한 농촌체험, 산촌유학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농촌학교에 대한 홍보를 대행할 필요가 있다.
 - 대다수 농촌학교가 교육 정책 이외에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농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발굴해야 한다. 동시에 최근 도·농교류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각종 농업관련 장학재단의 사업 등 농촌학교가 학교 교육 및 주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민의 농촌학교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 얼마나 많은 도시민 가정에서 농촌학교로 오고 싶어하는지, 구체적인 수요 파악이 필요하다. 농촌학교 이주의 규모·이유·시기,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도시민 가정의 농촌학교 이주의 이유에는 대안 교육 요구, 정서 또는 건강상의 부적응 등이 많았고, 대다수가 몇 달 또는 초등학교 기간 동안만의 유학에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주거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기 유학에 그치는 사례를 어떻게 장기 체류로 이끌어 가고, 이들이 농촌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2.2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농촌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을 확대한다³⁴.
 - 사례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농촌학교의 활성화에 있어 교장의 리더십과 열정있는 교사가 필수적이다. 교장과 교사가 도시의 규모화된 학교에 적합한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틀과 순환근무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농촌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교육에 대한 자신의 열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농촌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각 농촌학교에서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학교에 대한 우선적인 자율학교 지정 및 기준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농촌학교의 (예비/현직) 교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 농촌학교 교사에게는 교육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도시 학교와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 농촌 학생에 이해와 더불어 소규모 학급을 제대로 운영하고,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고, 나아가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와 어울리고 이를 교육에

³⁴ 박대식 외(2009)에서 재구성

활용할 줄 아는 전문성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 최근 전원학교, 돌봄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등 농촌학교의 지역사회와의 공식적 연계활동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로 투입되는 이러한 각종 사업의 책무성 확보차원에서 농촌학교 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연수가 필요하다.
 - 농촌학교로 전근할 예정이거나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농촌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가 농촌학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농촌학교 교육과 관련된 교과를 편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농촌학교 교사, 교육관련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이 참여하는 연구대회를 개최하여 농촌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농촌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특별채용한다.³⁵
- 농촌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하고, 이들은 특정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해당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어촌 학생에게 교육장이나 교장 등 지역의 추천에 의해 교대, 사대 특례 입학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농산어촌 교육 전문 교사로 양성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면 다시 출신 지역 학교로 임용시켜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복무시키는 농촌 교사 특별 양성 및 채용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촌 출신 입학생을 위탁 교육시키고, 자격을 부여하는 교대와 사대는 농촌학교 교사양성과정 인증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농림수산물부] 농촌학교에 진출할 예비 교사에 대한 장학 지원을 한다.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농림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

³⁵ 임연기(2009b)에서 재구성

다는 차원에서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을 농림수산계열 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중 농림수산업의 자녀³⁶에게 지원하고 있다.

- 농촌학교 활성화를 통해 농촌을 다시 살리는 농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농촌 출신 교사의 농촌학교로의 진출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학교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예비교사(사범대/교대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농촌학교] 교사·학부모 공동 연수를 활성화한다.
 -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촌학교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교사와 학부모와의 교류였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아이들 학업과 진로 문제로 다가가고, 학부모는 교사에게 스스로 없이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학교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교사·학부모 연수를 통해 남한산초등학교의 ‘남한산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거산초등학교의 교사·학부모 연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에 대한 시각을 일치시킴으로써 학교 운영의 교육철학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다.

2.3. 연계 프로그램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학교] 농촌학교의 ‘지역배우기/ 지역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농촌학교의 교육이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통해 지역을 아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자라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생이 되어준 자신의 고향과 지역주민을 제대로 모르면, 이후 성공해서 돌아와

³⁶ 2009년 1학기까지는 농촌거주자 자녀가 지원 자격이었다.

지역에 이바지할 여지가 적어진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촌학교의 지역 교류와 관련한 환경 생태 체험 교육 실시, 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한 학교 참여 등을 포함하여, 각종 농촌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농촌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방과 후 활동에 지역배우기 또는 지역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촌학교]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의 초등학교에 기숙시설을 마련하여 도시학생을 위한 ‘산촌유학’³⁷을 지원한다.³⁸
 - 대안적 교육에 높은 열의를 가진 학부모뿐만 아니라 도시의 과밀학급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녀, 아토피 등 건강상의 이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교육의 질 여부를 떠나 소규모 농촌학교를 찾고 있다. 그런데 귀농·귀촌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처럼 현재 농촌에는 마땅한 빈집을 찾기가 힘들다. 특히 농촌학교 근처로 이주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후 많은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가로막고 있으며,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이 인근 도시로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경관이 좋은 학교를 중심으로 도시 학생이 전학 와서 1년 이상 농산어촌 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산촌 유학 프로그램을 공모제에 의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기반이 구축되면 중학교 단계까지 확대 실시할

³⁷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민간에서 도입되어 2000년대 초반 ‘도·농 간 교류체험학습’이란 이름으로 학교 교육과 정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북 덕치초등학교의 ‘섬진강 참 좋은 학교’, 전북 완주의 고산센터, 강원도 양양의 철딱서니 양양산촌유학센터, 충북 단양의 한드미 마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³⁸ 임연기(2009b)에서 재구성

수 있다. 홈스테이, 민간시설 활용, 부모참여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산촌 유학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숙사형 산촌 유학이 가장 적절하다. 홈스테이나, 민간 산촌유학원 등은 학생들이 거주할 공간과 시설을 구비하기가 쉽지 않고, 학생을 책임 있게 지도하기가 어렵고, 민간이 운영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숙사 건립에는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농촌에서의 기숙사 생활 프로그램을 학교와 공동 개발·운영하도록 한다.

강원도 양양군의 산촌유학센터³⁹

폐교 위기에 내몰린 농촌지역 벽지학교를 살릴 대안으로 산촌유학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양양군은 올해 초 서면 공수전리 상평초교 공수전분교에 ‘철딱서니 양양 산촌유학센터’를 유치해 폐교 위기의 학교를 되살렸다. 이를 모델로 양양군은 산촌유학센터를 내년에 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대 대상 학교는 한남초교, 현북초교, 현상초교, 회룡초교, 인구초교 임호분교 5곳이다. 임호분교는 학생 수 11명에 교직원 6명, 현북초교도 학생 수 15명에 교직원 10명 등 대부분이 학생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다. 이들 학교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주민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리기 직전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내년에 5개교에 모두 10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산촌유학센터 운영은 공수전분교의 철딱서니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과 별도의 운영주체에게 맡기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6개월에서 1년 단위이며 1인당 월 유학비용은 60만원 정도다. 이 중 30%를 양양군이 지원한다. 학생들은 학교 근처의 농가나 센터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정규 수업을 마치면 자연과 동화되는 각종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양양군은 산촌유학센터가 학생과 학부모 1명 이상의 주민등록 이전을 전제로 입학이 가능해 5곳에 100명의 학생이 모집되면 최소 2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부모와 지역을 연계한 활발한 도·농교류도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 농촌학교] 지역별 농촌학교 간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39 “벽지학교 산촌유학으로 되살린다” (조선일보 기사 2009. 10. 7)

- 농촌학교는 개개 학교별로 보면 인적자원, 예산, 교육공간이 제한적이어서 그로 인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거나 또는 학교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성당초등학교와 인근 3개교(금성, 응포, 함라) 학교군

사례 2) 남한산초등학교와 광지원초등학교, 변천초등학교, 분원초등학교의 EDUBELT

사례 3) 홍동중학교의 온마을 학교

사례 4) 충남교육연구소의 청소년 문화학교(느티나무)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마을 공부방 설치 운영을 활성화한다.
 - 농촌의 일정 규모 촌락에는 보육시설을 갖춘 마을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마을의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합 교육 및 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마을 공부방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관련 공공기관과 자원자가 참여하고 주민이 최대한 활용하는 농촌 지역연계형 교육발전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농촌학교 학부모 단체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 농촌학교가 학생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농촌 교육과 더불어 농촌학교의 부족한 인적 자원 문제가 해결가능하다.
 -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09. 8)⁴⁰에서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학부모 교육강화, 학부모 참여활성화, 학부모

서비스 강화 등을 골자로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 농업·농촌 정책 차원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특화하여 농촌 학부모의 학교 참여, 특히 지역개발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학교를 중심으로 삶의 질 계획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삶의 질 계획하의 각종 사업은 범정부적 계획으로 외형상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기존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단순 취합 수준에 그쳐 있다.
 -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삶의 질 계획하의 각종 사업을 특정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구현하여 발전시키는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학교는 대다수 농촌 지역에서 마을의 교육·문화·복지 등의 측면에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농촌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의 질 계획의 다른 영역(지역발전, 복지)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1군에 최소 1개 농촌학교 또는 1개 농촌학교군을 중심으로 ‘(가칭)농산어촌 삶의 질 모델학교’⁴¹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원학교, 방과 후 학교, 연중돌봄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산촌유학 등의 교육·복지 사업을 연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복지 지원, 예술·체육·문화 활동 지원과 더불어 농촌지역개발 사업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⁴⁰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부모정책의 추진방향(시안).

⁴¹ 임연기(2009)가 제안한 ‘농산촌어촌 통합형 복지모델학교’를 재구성한 것임.

부록 1: 농촌학교 우수사례 리스트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교과부 선정 전원학교	교과부 선정 혁신사례	언론 보도
가남초등학교	충남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29	041-942-5006	A		
가사초등학교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378	041-669-1394	A		○
가산초등학교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166	055-932-7691	B		
갈현초등학교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821	031-945-9394	A		
강내초등학교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	043-231-1329	B		
강상초등학교	경기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251	031-774-6311			○
강하초등학교	경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43	031-772-4005	A		
거산초등학교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리 28	041-542-9152	A	○	○
고남초등학교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417	055-884-5250		○	
고산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684-1	064-773-0041	A	○	
고서초등학교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569	061-382-0230	A	○	○
관봉초등학교	경남 진주시 정촌면 관봉리 1150	055-754-9198	B		
관인초등학교	경기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664-1	031-533-1222			○
관창초등학교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30-3	041-932-3195	C		
구래초등학교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02	033-378-2512			○
구만초등학교	충남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813	041-337-0320			○
군북초등학교	충남 금산군 군북면 두두리 355-1	041-753-2919		○	
근덕초등학교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77-1	033-572-3405	C		
금광초등학교	강원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858-3	033-647-9420		○	
금동초등학교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656-2	055-323-6605	B		
금반초등학교	경남 함양군 휴천면 금반리 92	055-964-0966		○	○
금성초등학교	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 152-2	041-752-3009	C		
길상초등학교	인천 강화군 길상면 운수리 527-3	032-937-0010			○
나진초등학교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463	061-682-6019	B		
남부초등학교	경북 상주시 지천동 500-1	054-533-7407			○
남산초등학교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129	033-261-0008	A		
남산초등학교	경북 경산시 남산면 산양리 161	053-852-5006	A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교과부 선정 전원학교	교과부 선정 혁신사례	언론 보도
남성현초등학교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257	054-373-1885		○	
남한산초등학교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373	031-743-6550	A		○
단성초등학교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596-2	055-972-6016	A		
단천초등학교	충북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08	043-422-9568	B		
당북초등학교	전북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874-1	063-468-0061	B		
당산초등학교	충남 당진군 송산면 당산리	041-352-3050	B		
대소원초등학교	충북 충주시 이류면 본리 569-15	043-848-3008		○	
대흥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조천읍 대흥리 1672-1	064-783-6626			○
덕치초등학교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221	063-643-5077		○	○
도곡초등학교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191	061-371-1071	A		
동강초등학교	전남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355	061-335-2052	B		
동화초등학교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화당리 361-1	043-298-4477			○
둔둔초등학교	강원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769	033-747-7668	A		○
매곡초등학교	경기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88-1	031-638-9210	A		
매화초등학교	경북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1135	054-781-4940	C		
맹방초등학교	강원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171-1	033-572-3205		○	
면온초등학교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2리	033-332-0906	A	○	○
문의초등학교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	043-297-7722	A		
백운초등학교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길 45	043-652-6488	C		
변산서중학교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525-4	063-582-8039	B		
봉현초등학교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170	054-636-2280	A	○	
사벌초등학교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담리 361	054-532-8115	A		
산동초등학교	전북 남원시 산동면 태평리 138	063-626-1383	B		
산북초등학교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75	054-552-7100	A		
산외초등학교	전북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451	063-537-3214	C		
삼성초등학교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225	041-675-4208	C		
삼우초등학교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168-7	063-263-8897			○
상면초등학교	경기 가평군 상면 임초리 445-3	031-585-2084	A		○
상평초등학교	강원 양양군 서면 상평리 18	033-672-2982	B		
서삼초등학교	경기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1070	031-673-4427	B		
서상초등학교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1769	055-963-7188	A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교과부 선정 전원학교	교과부 선정 혁신사례	언론 보도
서원초등학교	전북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20	063-625-0277		○	
석정초등학교	경기 김포시 대곶면 석정길2길 2	031-989-3706	B		
선동초등학교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74-9	031-797-0668		○	
설천초등학교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71	055-862-0743	A		
성당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615	063-862-0244	A		○
성읍초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002	064-787-7093	C		
송라초등학교	경기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585	031-295-2101	B		
송지초등학교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724	061-535-1132			○
송촌초등학교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692	031-576-9212	A		
수정초등학교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	043-543-7034			○
시량초등학교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223	041-337-4043			○
시목초등학교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288	041-672-6108		○	○
신평초등학교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681-3	033-731-6903		○	
쌍치초등학교	전북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 129	063-652-2155	A		
양동초등학교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64	054-762-4746	A		
엄정초등학교	충북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460	043-852-1518		○	
예당초등학교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371	061-853-7017	B		
옥곡초등학교	전남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623	061-772-6681	C		
옥천초등학교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573	061-532-5609	A		
와룡초등학교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684	054-857-0819	A		
외북초등학교	경기 포천군 신북면 계류리 54-3	031-533-6007	B		
용대초등학교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25-1	033-462-3480	B		
용산초등학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33	055-337-9052		○	○
용정초등학교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651	041-553-6126	B		
위천초등학교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27	055-943-0004	A		
이성초등학교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426-1	063-221-9153	B	○	○
임계초등학교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8리	033-562-6026	B		
임당초등학교	강원 양구군 동면 임당리 564	033-481-8660	A		
장평초등학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택로 23	031-332-4224	A		
전동초등학교	충남 전동면 노장리 595	041-863-1209	B		
점동초등학교	경기 여주군 점동면 저안리 117	031-882-2384	A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교과부 선정 전원학교	교과부 선정 혁신사례	언론 보도
조림초등학교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517	063-432-2342			○
조현초등학교	경기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174	031-772-4942	C		○
지산초등학교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240-2	061-542-3733	C		
지제초등학교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502-2	031-774-4689			○
진원초등학교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94	061-392-9822		○	
창천초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473	064-794-9906		○	
청룡초등학교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352-7	043-881-0570		○	
청리초등학교	경북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729	054-534-2234			○
청산초등학교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988	061-552-1023			○
청원초등학교	경기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228-4	031-356-4931			○
청천초등학교	전남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676	061-782-4014	A		
추풍령초등학교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375-1	043-742-2781	A		○
탄천초등학교	충남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480	041-853-5161	B		
탄현초등학교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2리 489	031-942-9016	B	○	
태인초등학교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429	063-534-8845	C		
토산초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515	064-787-4753		○	
파천초등학교	경북 청송군 파천면 관2리 774-1	054-872-2933	B		
풍산초등학교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764	033-441-3278			○
한산초등학교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041-951-0081	A		
한티초등학교	경기 용인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577	031-332-6800	C	○	
현매초등학교	경기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193	031-673-2386		○	
홍동초등학교	충남 홍성군 홍동면 윤월리 221	041-633-3040	A	○	
화령초등학교	경북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184	054-533-0101			○
화제초등학교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1296-2	055-384-5517	A		
황둔초등학교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376-1	033-764-0528		○	○
황등초등학교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725	063-856-5930	A		
횡천초등학교	경남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752	055-884-0211	B		
효령초등학교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171-1	054-382-8008	B		
계 (117교)			78	27	35

* 이 자료는 연구진이 입수(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우수 사례 학교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록 2: 설문조사

- ▷ 설문조사 내용구조
- ▷ 설문조사지
- ▷ Ⅲ-7번 문항(농촌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농림수산물식품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

□ 설문 조사 내용구조

조사 내용			문항번호	변인명
I. 학교 기본 현황				
교장	성별		1	A01_01
	연령			A01_02
	교육경력			A01_03
	현학교 근무 년수			A01_04
	농촌학교 근무경력			A01_05
	근무 농촌학교 수			A01_06
	장학사(관) 경험여부			A01_07
	연구사(관) 경험여부			A01_08
	최종학력			A01_09
	교장임용유형(승진/초빙/내부)			A01_10
	교원단체 가입경험			A01_11
	거주지역			A01_12
교사	전체교사 수		2	A02_01
	남자교사 수			A02_02
	담임교사 수			A02_03
	순회교사 수			A02_04
	복식수업학급			A02_05
	상치교사 수			A02_06
	교사연령대	40세 미만		A02_07
		50세 이상		A02_08
	교직 경력	5년 미만		A02_09
		15년 이상		A02_10
	현학교 근무년수	2년 미만		A02_11
		4년 이상		A02_12
	소속 교원단체	교총		A02_13
		전교조		A02_14
	거주지역	학교소재지		A02_15
		통근자		A02_16

조사 내용			문항번호	변인명
학생	전체학생 수		3	A03_01
	결손가정 학생 수			A03_02
	취약계층 학생 수			A03_03
	다문화가정 학생 수			A03_04
	기초학습능력 미달학생 수			A03_05
	교육이유로 외지 유입학생 수			A03_06
	외지 유입 학생 변화		3-1	A03_07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화		3-2	A03_08
Ⅱ. 학교 활동 현황				
교장	학교 비전 개발과정 / 공유		1	B01
	교장 리더십 유형		2	B02
	교장-교사 교류	친목	3	B03_01
		세미나/연수	3	B03_02
	교장- 학부모/지역교류	학교운영위원회	4	B04_01
		학부모/지역주민		B04_02
		지역교육청		B04_03
		공공기관		B04_04
		민간/사회단체		B04_05
		타교육기관		B04_06
교장-지역개발사업 참여		5	B05	
교사	교사 전문성	농촌학생 이해	6	B06_01
		소규모학급		B06_02
		학부모 교류		B06_03
		지역자원 활용		B06_04
	교장 리더십에 대한 참여		7	B07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		8	B08
	농촌 지역사회 활동 참여		9	B09
학생	자아존중감		10	B10_01
	학습의욕(태도)			B10_02
	기초학습능력			B10_03
	학업성취도			B10_04
	희망직업(진로성숙도)			B10_05

조사 내용			문항번호	변인명
프로그램	정규 교과교육과정 재구성		11	B11
	학생 프로그램	기초학습 부진아	12	B12_01
		성적우수자		B12_02
		결손가정		B12_03
		자존감 회복		B12_04
		직업체험		B12_05
		문화, 예술		B12_06
		지역배우기		B12_07
		학생자치/동아리		B12_08
		방과 후 공부방		B12_09
		도시학교 교류		B12_10
		방학중 특별프로		B12_11
	주민 프로그램	학업/진로상담	13	B13_01
		사회교육		B13_02
		문화,예술,체육		B13_03
		시설개방		B13_04
Ⅲ. 지역사회 특성				
지리특성	도시와의 거리		1	C01
	사교육, 문화, 체육시설 여건		2	C02
지역주민	학교에 대한 지원	재정	3	C03_01
		인력		C03_02
		시설, 장비		C03_03
	학교 행사 참여도		4	C04
	주민 역량	학력	5	C05_01
		경제력		C05_02
		혁신의식		C05_03
자녀 기대		C05_04		
학교에 대한 기대		6	C06	

안녕하십니까?

농촌의 교육 문제해결이 돌아오는 농촌, 활기찬 농촌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농촌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촌학교에 대한 교육 복지 정책에 더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개발 정책 차원에서 농촌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촌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우리나라 농촌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응답 중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사, 02-3299-4258, msj@kre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응답해주신 선생님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정의 답례품을 우송해드리겠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http://www.krei.re.kr>)

※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하거나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I. 학교 기본 현황

학교명	
-----	--

1. 교장선생님의 기본 인적사항

성별	① 여 ② 남	연령	만()세
총 교육경력	()년	현 학교 근무연수	()년
농촌학교 근무경력	()년	근무한 농촌학교수	()개
장학사(관) 경험여부	① 없음 ② 있음	연구사(관) 경험여부	① 없음 ② 있음
최종 학력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교장 임용 유형	① 승진임용 ② 초빙형 ③ 내부형		
교원단체 가입경험	① 교총 ② 전교조 ③ 가입경험 없음		
거주지역	① 학교 소재지 ② 인근 도시에서 통근		

2. 교사 현황

전체 교사수	()명	남자 교사	()명
담임 교사수	()명	순회 교사	()명
복식 수업 학급	()개	상치 교사	()명
교사 연령(만)	40세미만()명, 50세이상()명	교직 경력	5년미만()명, 15년이상()명
현학교 근무연수	2년미만()명, 4년이상()명	소속교원단체	교총 ()명, 전교조()명
거주지역	학교 소재지 거주자()명, 인근 도시에서 통근자 ()명		

3. 학생 현황

전체 학생수	()명	결손가정 학생	()명
취약계층 학생	()명	다문화가정 학생	()명
기초학습능력 미달 학생	대략 ()명		
교육을 이유로 외지에서 유입된 학생	대략 ()명		

3-1. 교육을 이유로 외지에서 유입되는 학생수 변화 추세는 어떻습니까?

- ① 타지 유입은 거의 없음 ②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③ 최근 와서 많이 늘고 있음

3-2. 선생님 학교의 최근 5년간 학생수 변화 추세는 어떻습니까?

- ① 아주 많이 감소 ② 조금 감소 ③ 거의 변화 없음 ④ 조금 늘었음 ⑤ 아주 많이 늘었음

II. 학교 활동 현황

1. 학교의 비전(발전목표)은 어떻게 개발되었습니까?

- ① 아직 뚜렷한 학교의 비전(발전목표)이 없는 상태이다.
 ② 개발 당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③ 교장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였다.
 ④ 교장과 교사들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었다.
 ⑤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교장, 교사들의 공동 작업으로 만들었다.

2. 다음 중 교장선생님은 평소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선호하십니까?

- ① 정해진 목표(과업)의 달성을 중요시 하는 편이다.
 ②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편이다.

3. 교장선생님은 교사들과 친목도모 또는 세미나 모임을 가지십니까?

교사들과의 모임	없음	1년에 한번정도	분기당 1번정도	1달에 한번정도	매주 한번이상
친목 도모 모임	①	②	③	④	⑤
세미나 / 단체 연수	①	②	③	④	⑤

4. 학생 및 주민들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장선생님은 학부모 및 학교와 관계된 지역 사회 인사들과 교류하십니까?

학부모 / 지역사회 인사	교류 없음	1년에 한번정도	분기당 1번정도	1달에 한번정도	매주 한번이상
학교 운영위원회	①	②	③	④	⑤
일반 학부모 / 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	①	②	③	④	⑤
지역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관내 공공기관(읍면사무소, 군청, 우체국, 은행, 보건소, 군부대 등)	①	②	③	④	⑤
민간기업체/시민사회단체(농민단체, 환경단체 등)	①	②	③	④	⑤
타교육기관(인근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①	②	③	④	⑤

5.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예: 마을개발사업)에 참여하십니까?

- ① 마을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②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③ 마을 개발 계획 등에 실제 참여해본 적이 있다(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6. 귀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농촌학교 교육에 대한 전문성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학교 전문성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음
농촌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배려	①	②	③	④	⑤
소규모 학급 운영	①	②	③	④	⑤
학생 상담 등 학부모와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의 활용	①	②	③	④	⑤

7. 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참여수준(followship)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다소 부족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8. 귀교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기대(학업성취, 정서발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9. 귀교 교사들은 농촌 지역사회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불참 ② 거의 불참하는 편 ③ 그저 그렇다 ④ 참여하는 편 ⑤ 매우 활발히 참여

10.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인근 도시 학생들과 비교하여 귀교 학생들을 평가하신다면?

학생 수준	매우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음
자아에 대한 존중감	①	②	③	④	⑤
학습 의욕(태도)	①	②	③	④	⑤
기초학습능력	①	②	③	④	⑤
학업 성취도	①	②	③	④	⑤
희망 직업(진로 성숙도): 명료한 진로 전망	①	②	③	④	⑤

11. 귀교에서는 사회변화, 학생,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정규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2. 귀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생 프로그램	없음	활동 미약	대우 활발
기초학습능력 부진아를 위한 프로그램	①	②	③
성적우수 아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①	②	③
결손가정 학생 지원 프로그램(무료급식, 돌봄)	①	②	③
농촌학생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①	②	③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①	②	③
문화·예술 프로그램	①	②	③
(농촌체험 등)지역 배우기 / 지역주민과 교류 프로그램	①	②	③
학생 자치 및 동아리 프로그램	①	②	③
방과후 (저녁) 공부방 프로그램	①	②	③
도시학교와 교류 프로그램	①	②	③
방학 중 특별 프로그램	①	②	③

13. 귀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부모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까?

학부모 및 주민 프로그램	없음	활동 미약	대우 활발
학부모를 위한 자녀 학업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①	②	③
학부모/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지역주민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나 행사	①	②	③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방과후 학교시설 개방	①	②	③

III. 지역사회 특성

1. 귀교 소재지의 인근 중소도시(또는 대도시)와의 거리(대중교통 이동시 소요시간)?

① 30분 이내 ② 30분~1시간 ③ 1시간 이상

2. 인근 도시와 비교할 때 학교 소재지의 사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건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부족 ② 부족한 편 ③ 보통 ④ 충분한 편 ⑤ 매우 충분

3. 학부모(동창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주요 인사의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지원 활동	매우 저조	적조 한편	보통	화발 한편	매우 활발
재정지원(기금)	①	②	③	④	⑤
인적지원(강사활동,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시설(장소, 장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프로그램)에 대한 귀교 학부모(지역주민)들의 참여정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대체로 낮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5. 인근 도시와 비교할 때, 학부모나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다음 항목들에 대한 수준을 판단하시면?

주민들의 수준	매우 낮음	낮은 편	비 슷 함	높은 편	매우 높음
학력수준	①	②	③	④	⑤
경제력 수준	①	②	③	④	⑤
혁신(변화)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⑤
자녀 교육(학력, 희망 직업)에 대한 기대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귀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7. 마지막으로, 농촌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교과부 외에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Ⅲ-7번 문항(농촌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자유응답

응답 번호	응답 내용
1	- 농촌의 소규모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다면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루 살피는 교육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 수에 비례하여 교사 수를 배정한다면 농어촌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데, 열악한 소인수학교는 교사가 없는 학생만 남는 정책이 된다면 소인수학생들은 어찌될 것인지 우려됨.
2	1. 현재 초중학교 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 중 급식비 비중이 가장 높은 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면단위 이하 초·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여 무료 급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학급당 학생 정원을 도시학교(35명)와 달리 농촌학교당 25명 정도로 책정함으로 농촌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논리에 의해 교감이 없거나 보직교사 수(2명)가 적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고, 보직교사 수를 늘려 줄 필요가 있음. 이는 곧 교육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
3	1.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경쟁력의 밑받침이 된다는-식량안보 차원 또는 좋은 먹거리 차원의) 2. 농촌의 살림이 나아지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새마을운동 당시 추진했던 지붕개량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친환경적 주거 환경개선사업 등) 3. 단 한 명의 학생이 있어도 최소한 1면1교 정책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복식학급 해소 차원의 기간제 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등의 예) 4. 교육은 지역의 희망입니다. 갈수록 폐쇄해지는 농촌에서 학교마저 사라지면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살리는 것이 농어촌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4	1. 1면 1교 지키기 2. 학습권보장을 위한 복식학급 편성 절대불가 운동 전개 필요 3. 2010학년도부터 1면 1교 학교도 복식수업을 해야 함. 이는 농촌아이들 학력에 치명타
5	1. 경제논리로 농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을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 학교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 2. 농촌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학생의 유입을 위한 노력 필요. 3.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라 취학아동이 없으므로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도시의 젊은 실업자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사업개발이 요구됨.
6	1. 고품질 급식지원 2. 도시체험 기회 제공 3. 평생교육시설지원(체육관)
7	1. 기초학력미달 학생 학력증진 지원 희망(강사비, 운영비), 2. 통학수단 지원희망(소형버스 임대료 등), 3. 평일 저녁식사와 방학 중 중식지원

응답 번호	응답 내용
8	1. 농산어촌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지원 후의 지속적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한 소득증대를 통해 교육비 걱정이 없는 농산어촌 조성 - 산촌: 산지를 이용한 장뇌삼 등의 약초재배사업 - 어촌: 펜션, 바다목장사업 -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한 휴경지 개발을 이용한 소득작물 재배사업 2. 교과부와의 공조를 통한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우수교사의 유인책 강구 -사택건립 및 주거비 지원 -근무여건이 현재의 도서벽지학교와 같거나 불편한 지역 근무교사에게도 도서벽지근무교사에 준하는 승진 가산점 부여
9	1. 농산촌 주민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소득증대를 포함하여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농어민 자녀 교육 및 진로의식을 고취시켰으면 함(단, 농번기를 피해서). 2.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위해 구매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학교에서 별도의 유전자 검사 또는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10	1. 농어촌 실정을 고려치 않는 현행 학급당 인원 수 배정 기준은 불합리 2. 과감한 통폐합(관 주도)으로 학습의 질 향상이 절실함 3. 부적격 및 학부모 기피 교사에 대한 학교장의 과감한 인사 조치권 필요 4. 지자체의 교육 관련 교부금 수준 향상
11	1.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대책, 농촌 살리기 대책 강구 2. 저소득층 아동, 소외 계층 아동의 보육정책 확대
12	1. 농촌의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 - 소득이 있을 수 있는 농공병진 정책,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 주변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정책 2. 유아 교육 정책 마련 - 훌륭한 유아교육프로그램 마련, 등·하원 시 유아 수송 문제 해결
13	1. 농촌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농어촌 중소기업유치 또는 농업 특수작물재배에 대한 홍보, 권장으로 농촌학교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2. 임금의 격차를 줄여 전문계고 졸업생과 대졸사원 또는 전문직종사자 간 임금의 차이가 큰 만큼 사교육과 유학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봄
14	1. 농촌지역학교가 학교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지원책(본교의 예: ‘찾아가는 가정교사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지도로 학력제고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음) 2. 도시학생들이 시골로 학교를 옮겨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시설 제공과 운영예산지원 또는 통학버스 지원
15	1. 농촌학교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아쉽다. 친환경 농산물을 가꾸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하며, 농산물의 판매효과도 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쉽다. 2. 지역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바닷고기시식, 조개류, 과일류, 쇠고기)도 농촌 지역 학생에게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응답 번호	응답 내용
16	1. 마을공부방운영. 단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지도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2. 학부모와 함께하는 선진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3. 장래 농촌에 정착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유능하고 지도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 4. 농촌 학생 중에서도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인터넷 강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별된 학생중심으로 학력향상지도
17	1. 소규모 농산어촌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서 교직원 및 학생 전원에게 무료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함. 2.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전문강사요원을 지원해주었으면 함.
18	1. 지역농산물로 학교급식 실시 2. 학교사택정비(농어촌교사 주택제공) 3. 2부제 금지(교육권, 평등권 위배-위헌적임) -한 교사에 2, 3개 학년 합반수업은 교육권, 평등권 위배 4. 농촌학교일수록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게 시설지원요망 - 도서실, 체육관, 회의실 등
19	1.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경비지원 2.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급식에 활용 3. 학교 사정에 따라 실질적인 시범학교운영을 바랍
20	1. 특별히 학교주변에 거주하며 근무할 교사 및 행정직원을 별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승진 가산점 및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2. 농촌 중학생들의 먼거리 통학의 고충 해소를 위해서 학교 주변에 자취, 기숙할 수 있는 여건이나 통학차량 지원이 요구됨 3. 농촌지역 학교의 노후 교사건물의 대대적 증개축이 요구됨 4. 어려운 농촌학교 관리자 등에도 인센티브 부여(전출 등) 5. 상부교육기관에서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라는 등의 조언이나 학운위, 동창회의 동의를 얻으라거나 사업추진하라는 등의 내용은 농촌의 어려움을 모르고 책임을 관리자에게 떠넘기려는 처사이므로 국가 자원의 예산배정이 필요함
21	1.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 많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체제가 도모되었으며 좋겠음 2. 학생 수 감소(주로 중소도시 대규모 학교로 전출, 진학 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요구됨 3. 학생 전출시 '전가족 이주' 시만 가능토록하는 제도가 부활되어야함.
22	- 10학급 규모로 교사의 업무 과중하여 학습지도에 전념이 어려움. 보건교사가 없어 신종플루 발생 시 업무과다로 학생관리 소홀. 급식공동구매 시도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많아 양질의 급식 제공이 어려움
23	- 가정형편이 나은 가정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외지로 나갔고, 남아 있는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나 성적이 극히 어려운 학생들임. 아침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음 (경제적 또는 관심부족이유). 중식은 제공되지만 조식은 학교 차원에서 제공되지 않아 영양 불균형.

응답 번호	응답 내용
24	- 결혼가정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도시로의 이동 학생때문에 농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소외감이 크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농어촌 학교에 과감한 지원책이 요구됨
25	- 결혼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특별지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6	1. 학교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2.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는 (주택, 직업 등) 정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으면 함.
27	- 교육문화 환경여건이 미흡한 농촌이니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학교에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28	- 교육인 농촌이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 부탁
29	- 급식비를 무료로 해주는 정책이 필요함(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 수가 재학생의 1/3임)
30	- 농가소득증대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을 통하여 도시의 인구분산을 유도·농촌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학교의 학생 수 확보와 경쟁력 있는 농촌 소재지 학교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귀농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농촌의 소득수준, 문화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해 봅니다.
31	- 농림수산물식품 체험학습코너 설치운영.
32	1. 농림수산물식품부만의 정책보다도 교과부와 함께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2. 농어촌 교육의 시급성은 교사확보임. 그러므로 교사들이 방과 후까지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농촌 공중보건의와 같이 농어촌 오지에는 농어촌에 의무복무 병역특례가 아주 좋은 제도임.
33	- 농림수산물식품부 주요 연구직 및 관련부서 리더임원들이 직접 농촌학교지역에 내려오시고,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시절은 농촌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농촌발전의 실효성이 더 클 것 같음.
34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도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교과부의 농산어촌 돌봄학교와 같은 재정지원을 꼭 해야합니다.
35	-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인근 도시와 왕래가 원활할 수 있도록 교통망 정비
36	-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지원처럼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야 연계되어 교육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1회이거나 일시적인 지원은 부담과 불신이 커질 수 있음
37	- 농산어촌 체험지원, 농식품부 주관 연구학교운영 확대, 자연생태관(수족관, 수생식물관, 조류관 등) 지원
38	- 농어촌 체험 학습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체험학습장 조성 비용지원
39	- 농어촌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장이 지역문화창달에 동참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정책이 필요함. - 농어촌 학교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기능을 포함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어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를 최소화해야 한다.

응답 번호	응답 내용
40	- 농어촌 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저소득층 자녀 지원
41	- 농어촌학교의 지원기준을 도시학교에 비교하여 현재는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교사 수, 학급 배정을 정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에는 학급편성 기준을 20명 이하로 내려 도시지역에 비해 다문화, 결손(조손)가정 자녀가 들어가는 현상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2	- 농촌 소규모학교는 급식비 및 우유를 무료로 지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	- 농촌 지역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과 도시체험프로그램, 방과 후 학교 활동지원.
44	- 농촌거주 학생 복지혜택 확대요망-급식무료제공, 주택무료제공, 교육프로그램운영비 대폭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비 확대지원, 교사 인센티브 제공(승진가산점 등)
45	- 농촌경제력제고, 교육(진로)과 농촌환경 연계-농촌의 지역일꾼 만들기, 농촌형 교육과정 등 (ps. '농촌교육론'에 관련된 자료나 책을 소개해주십시오.)
46	-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찾아오는 농촌이 되었으면!
47	- 농촌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시급, 농산어촌의 중요성 인식 활성화 방안 제시, 환경의 중요성 인식, 친환경 농산물 필요성 강조
48	- 농촌에는 노인들만 있음. 청년들은 모두 대도시로 감. 농촌학교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49	- 농촌에서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예를 들어 김치 담그는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거나 전통 온돌방을 갖춘 체험 공간을 확보하여 1박 2일 체험학습이 전례화 되도록 학교와 연계 작업이 필요함.
50	- 농촌이 도시보다 잘 사는 정책 연구가 필요함
51	- 농촌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농촌경제정책을 잘 수립, 실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52	-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곧 학교의 활성화가 될 것임. 농촌지역 학생의 농업에 관한 비전 제시 차원에서 체험 활동 기회 제공
53	- 농촌체험활동과 학교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농촌지역의 주택(전원투택위주) 신축 지원체제 마련, 농촌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연계활동 홍보 등
54	- 농촌학교 살리기 및 농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함
55	- 농촌학교 인구감소책 교사 정원을 늘려주기 바람. 교육환경 열악하므로 교사정원을 늘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었으면 하고, 읍단위에서는 수업시수가 너무 많음.
56	- 농촌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 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적 자원 지원 필요.
57	- 농촌학교의 전원학교 및 공원화 사업에 적극 지원,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조장할 수 있는 산업 유치,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마을 등 농촌선진화
58	- 농촌학생과 학부모들이 농촌학교에서도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재정적,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함.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도시학생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농촌이 폐쇄되어가고 있다. 향후 농촌은 학교가 거의 없어질 것임.

응답 번호	응답 내용
59	- 농촌환경개선사업 추진, 농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선진지 견학
60	- 대부분 농촌학교는 소규모인데 교사들 업무는 큰학교와 같기 때문에 적은 인원의 교사들이 해야 할 업무는 너무 많으므로 학생들의 상담이나 생활지도 등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그리고 교사당 수업시수는 많음. 교사 수 증가 또는 업무를 보조해 줄 인력 보강이 필요함.
61	- 대학의 농촌 캠퍼스 확대, 특산물 생산 증대 및 가공품 공장 설치 확대, 농촌학교 학생 무상 지원 및 장학제도 활성화
62	- 돌아오는 농촌정책으로 귀농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는 시책을 펼쳐 주시면 합니다.
63	- 면소재지 이하 학교에 무료급식지원, 각종 방과 후 활동의 활성화에 따른 경비지원, 야간강좌 개설에 따른 등하교 안전장치지원
64	- 무료체험(차량 및 모든 경비지원)의 상설화, 학부모의 농어촌 전입을 위한 학교지원방안 모색
65	-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기회제공,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지원, 교원들의 사택지원
66	- 방과 후 학교 및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장소 제공(농림수산식품부의 시설 이용), 학교와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67	-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경제적 지원금이 필요함. 교과교육과정에서 인적지원(강사활동)이 필요함-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음악과 탁구, 골프 등의 체육, 기타 민요, 전통악기(풍물) 등의 강사지원이 필요
68	- 본교는 2007년 3월 1일 본인(교장)부임했을 때 유치원생 4명, 초등 25명으로 2008년 폐교 예정학교였음. - 실제로 다음에서 ‘송신탐 골불건’을 입력하시면 학교 앞에 커다란 송신탐이 있음. 지역사회가 학교를 포기한 상태 입증, 2007년 “우생순”영화촬영지(낙후된 옛날학교 표본구역) - 본인학교장으로 부임 후 교직원, 지역사회, 동창회의 협력으로 총동창회를 창립하고 열심히 교육활동으로 “찾아오는 학교”로 유치원 34명, 초등 125명 학교로 발전, 2008.10.17 교과부 주관 평생교육대상(교육기관부문) 수상하였고, 2009년 교과부 전원학교사업(보도자료, 표제로 제시되는 학교)의 표본으로 선정함 - 농촌지역 60년된 학교로 지역사회에 노령인구 중심이고 지역학생은 유치원까지 20여 명에 불과하나 동창회, 지역사회,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고 있음. - 발전모형을 본교로 지도하여 새로운 모형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	- 본교는 1999년 총학생 수 54명으로 폐교위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360명까지 늘어난 서울, 부산, 울산, 제주도에까지 있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 받는 학교임. 농촌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받고 전국으로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0	- 사교육비의 지원 및 대학 입학 특혜

응답 번호	응답 내용
71	- 살기 좋은 농촌, 경제적으로 살만한 농촌으로 만들어 학교가 붕괴되지 않도록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
72	- 생태학습공원화지원, 농촌일손경감차원에서 보육교실지원(오후 6시까지), 학생 등하교를 위한 차량지원, 학력향상 및 특기신장을 위한 강사지원
73	- 소규모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및 학교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가정 학부모(아버지) 교육 지원, 학부모 대상 사회교육.
74	- 순회프로그램 마련(문화, 예술, 환경),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초청,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
75	- 시골 소규모학교의 특별교육 즉 기숙형 자율학교를 만들어 과밀지역의 학생들이 시골 소규모 학교로 유입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도 도시학생의 유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76	- 시설개선 지원
77	- 예술문화체육활동 지원 1. 시설, 프로그램 활용 경비지원(현황과약 후 소외지역대상) 가. 학기중-전교생 연1-2회 체험경비(차량임대, 관람료) 나. 방학중-소외계층학생대상특별체험(연2회) 2. 이유: 소외계층 가정 환경 열악, 의욕상실로 청소년 비행 우려됨(학부모가정, 저소득층, 맞벌이노동부모, 자녀일탈, 학교지도의 한계)
78	- 우리농산물(저공해) 제공
79	- 우수한 급식재료의 무상지원, 학부모 지역민에 대한 지역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계몽 활동 전개, 학교 숲, 화단 조성 지원
80	- 의무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급에 대한 무료급식문제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81	- 일자리 창출
82	-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문화시설확충과 우수예능강사가 출강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
83	- 적극적인 재정지원(방과 후 교육비)
84	- 정책적으로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임. 100명 이하 폐교 또는 통합하면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학교도 없는 농촌으로 올려고 하겠습니까.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연구해 작은 학교이지만 소외 받는 학생 없이 고향에서, 한두 학생이라도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연말이면 폐교 대상이니 하면서 조사를 하니 학부모들은 도시로 이주하고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돌보고 있는 시골의 실정입니다.
85	- 좋은 정책의 수립으로 활기찬 농촌이 되기를 기대하며 농어촌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6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모니터링하여 그에 알맞은 교육과정이나 전문계 학과 설치 등에 관해 조언하고 교과부, 지역교육청과 함께 특성화학교, 학과 설치 등을 유도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도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답 번호	응답 내용
87	- 지역상권 활성화(민속마을에 대한 대책), 농산촌 특성화 브랜드 상품 개발 및 지원(흑돼지, 천연염색 등)
88	- 초등학교 급식무료지원,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는 마을단위(또는 읍면단위) 공부방, 운영 지원, 교사정원 확대 지원, 조손가정 및 다문화가정, 기초수급학생 등의 교육비 적극지원
89	- 최근(2년 전부터) 학생 수 증가로 찾아오는 학교로 변모하였으나, 교실 부족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전학오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음. 농촌학교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영하면 농촌학교를 살릴 수 있음. 교과부는 농촌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학생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90	-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교육공동체를 키우는 일
91	- 학교 급식 시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율 상향조정, 현재 친환경농산물 지원비중 쌀 구입비에 40%가 소요되고 있어 채소 등 구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급식비를 국비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함.
92	- 학교 중심 교육활동이 되도록 집중이 필요(보통 학교의 호라동에 중복되는 유아교육기관, 돌봄교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는 도시학교의 계절학교 또는 체험중심 학교로 편성운영. 농산어촌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제정의 지원으로 문화 결핍해소방안 모색.
93	-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질적 향상,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94	- 학교에서 재미있고 건전한 이벤트(평생교육 수준)를 많이 자주 열어 지역 속의 문화공동체 활동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 학부모와 함께하는 재량수업, 부모님과 역할 바꿔 체험해보기, 반딧불의 독서교실 등
95	- 학교주변 일자리 창출, 농촌학교 무료급식, 통학차량지원, 학교주변 소규모 주택 지원, 학비 지원 소망.
96	- 학구제 폐지 또는 개선, 지속적인 예산지원(예:전원학교육성 등), 농촌학교 교사 복무에 인센티브 부여, 교직원 사택 신·증·개축, 학교시설의 개선, 통학지원(스쿨버스, 버스노선확충(등학교시간대))
97	- 학부모 일자리 창출과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한 학교와 마을의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지원, 농촌지역학생, 학부모의 복지를 위한 통학버스나 공동체육시설 지원
98	- 학생들에게 급식비 무료 지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비 지원
99	-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도시로 진출하여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학생들이 농촌에 살면서도 자기의 뜻과 기술,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법 중에는 농촌에 살면서도 축산업, 산림업, 특수농작물 경작, 건강식품 제조, 애완동물 사육 등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하여 매스컴에 알려지게 하여 학생때부터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준비와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위에 주택이 부족해 도시민들이 이주하지 못하고 있음. 본교와 같이 학생 수 증가요인이 있는 학교 인근에는 주거지 확보 바람

응답 번호	응답 내용
101	- 현실적인 학구조정 건의(예, 우성면 전지역을 우성중으로 진학시킴), 농촌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개발(예, 지역학교살리기 캠페인 활동, 열악한 가정 적극적 지원(학비 등))
102	- 현재 공급되는 식자재가 무농약, 친환경 식재료라 해도 안전성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과정의 검수시스템의 활성화로 식재료 안정성 정책이 요구
103	- 현재 전원학교육성 사업과 돌아오는 농촌학교사업의 혜택을 받아 본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이 사업의 혜택을 다른 소규모 농촌학교에서도 받았으면 함.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년 교과부 업무보고: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
- 교육인적자원부. 2002. 「농어촌 교육발전 방안 수립·추진안」.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회의자료.
- _____. 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 나민주. 2008. 「교장 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지방교육연구센터.
- 농림부. 2004.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림부. 200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및 2005년 시행계획」.
- 박대식 외. 2004.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박주영. 200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 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병우 등. 2005. 「농산어촌 교육살리기 방안연구」.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임연기. 2006. 한국 농촌교육정책의 변천과 그 특성 및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44: 27-50.
- _____. 2007. “Issues and Tasks of Rural Education in Korea.” 「교육행정학연구」 25(4): 565-584.
- _____. 2007. 한국 농촌교육의 문제와 정책적 함의. NURI-TEIC.
- _____. 2009. “한국 농산어촌 교육 육성 방향과 과제.” 「제3회 우리 농어업 희망찾기 연속토론회 자료집」. 농어업희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 _____. 2009. 「농산어촌 학교운영 우수사례」. 교육과학기술부.
- 송미령, 김광석, 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지웅 외. 2002.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 연구」.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2-14.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 _____. 2008a.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한만길 외. 2008.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 Arnold, M. L. 2000. *Rural schools: Diverse needs call for flexible policies* [policy brief]. Mid-continent Research for Education and Learning(McREL).
- Arnold, M. L., Gaddy, B. B., & Dean, C. B. 2004. *A look at the condition of rural education research: Setting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McREL.
- Arnold, M. 2004. *Guiding rural schools and districts: A research agenda*. McREL
- Beesely, A. D. & Barley, Z. A. 2005. *Rural schools that beat the odds: Four case studies*. McREL.
- Barely, Z. A. & Beesely A. D. 2007. "Rural School Success: What Can We Learn?" *Journal of Research in Rural Education*, 22(1): 1-16.
- Carter, G. Lee, L., & Sweatt O. 2009. *Lesson Learned From Rural Schools*.
- Masumoto, M, & Brown-Welty, S. 2009. "Case Study of Leadership Practices and School-Community Interrelationship in High-Performing, High-Poverty, Rural California High Schools" *Journal of Research in Rural Education*, 24(1): 1-18.

정책연구보고 P122
농촌학교의 활성화 실태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9. 12.
발 행 2009. 1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동양문화인쇄포럼
02-2242-7120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